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5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교 청소년 교화의 효시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직적인 청소년포교를 편지 30년인 셈이다. 미래 한국불교를 짊어질 새싹불자를 키우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이제 새롭게 인식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교화의 자세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청소년 교화

선남자야 비유컨대 장자는 그 사람하는 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반자(半子)를 배우게 하고, 반자가 바르게 된 다음에 차례를 따라 뜻이 깊은 이론을 가르쳐 아들의 학문을 성취시킨다. (대반니원경)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한다. 자식을 타일러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일을 가르쳐주며, 사랑이 자식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한다. (육방예경)

먼저 자기가 악을 제거한 다음에 남을 가르쳐 악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 주제에 남을 가르쳐 악을 제거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먼저 자신이 보시하며, 자신이 계를 지키며, 자신이 만족할 줄 알며, 자신이 근행정진 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남을 교화하는 것이다. (우바한계경)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세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성과 어질음을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 출세간의 온갖 언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셋째는 과과됨이 없어서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사원비파사론)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을 것이니,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육설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함이다.

다섯 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마역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자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신경)

관련기사 18면

"한국불교 인터넷 통해 세계로"

본사 '부다피아' 국내 첫 불교정보 실시간 서비스

美 링크스타 '고평가'…초파일 봉축행사도 안내

인터넷을 통한 불교관련 정보의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Buddhapia)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보서비스에 돌입 국내의 불교관련 정보를 1백 50개국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인 부다피아는 이미 1차 시범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미국의 거대 정보검색업체인 '링크스타'로부터 산(神, sun)부문 정보제공단체 중 최고의 점수(1천점 만점에 1천점)로 1위를, 일반 불교정보 부문에서도 2위(1백90점)로 평가 받았다. 또 각국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한국 불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게되 기쁘다"는 내용의 축하메시지를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내 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인 부다피아는 이미 1차 시범가동을 시작한 지 고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온 부다피아가 제공하는 불교관련 정보는 7가지의 주제별 홈페이지로 구성됐다. '현대불교신문 읽기' '한국불교 종단 안내' 온라인불교출판' '생활불교정보' '선관련정보' '불교인터넷네트워크' '인터넷네트워크' 등이 그것. 이에따라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언제든지 부다피아를 접속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궁금증도 전자우편을 통해 풀 수 있게 됐다.

부다피아는 또 올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봉축행사들도 별도의 홈페이지 '불기 2540 봉축행사 안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부다피아는 봉축기획단 · 한국불교문화원과 협조체제를 마련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다.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의를 비롯 각종 문화 행사와 법요식 연등축제 등의 일정과 행사내용을 제공한다.

불교관련 정보의 연동 서비스, 동화상 음성 서비스,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법회의 생중계 체계구축등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위해 부다피아는 전문인력과 데이타베이스의 고급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관련 특집 9 · 10 · 11 · 12면



천년만에 빛본 다라니경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나온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 다라니경은 서기 754년경 닥나무 한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일부내용을 발췌해 필사하고 탑모양의 도장을 발췌해 필사하고 탑모양의 도장을 파서 탑인(塔印)을 찍어놓은 백지묵서경(白紙墨書經)으로 드러났다. 팔사본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본에 이어 두번째 것이다. (관련기사 6면)



4 · 10 승려대회 2년 10일 조계종 기념식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4 · 10 승려대회 2주년을 맞아오는 1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총무원은 승려대회를 이끌었던 스님들, 개혁회의 기간중 총무원 소임을 맡았던 스님등을 초청, 개혁정신을 되새기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모색한다.

조계종 제120회종회 주요 결의사항

조계종 제120회 임시중앙종회가 지난달 31일 폐회됐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종회는 △95년도 결산 △종무보고 △사면등의 △중앙승가대부지 변경건 등을 처리하고 △종법 제개정 △토지처분 △청원서 등의 안건을 4월경에 임시종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선학원 더이상의 대화노력은 무의미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단 뜻을 따르지 않는 선학원 임직원 소환조사 중징계. 법적대응 통해 정관변경과 최초 출연재산 조계종으로 소유권 회복토록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구제. 조사 징계범위는 집행부에 일임.

중앙승가대 부지이전 정규대승적, 승가대이전, 이전부지등 승가대 관련안건 중앙승가대이사회가 최종 결정후 종회에 보고, 승가대대책위 해체. (관련기사 3면)

사면동의 사면대상자 20명가운데 사면 2명,복권 9명,보류 5명,경감 2명,심사제외 2명등 대사면단행. 황현-사면, 보정-복권, 도각-공권정지1년, 지호-복권, 보원-사면, 도오-복권, 지원-복권,일법-복권,대우-공권정지 6개월, 시진-복권, 혜성-복권, 하능-복권, 탄우-복권.

백양사 고불총림설치 총림설치 만장일치통과. 총림설치법 개정 추진. (관련기사 3 · 4면)

봉은사 사회체육문화센터 · 대구 은적사 불교회관 경매 재정분과위와 감사국 합동감사실시.

불국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11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위법사실에 대해 호법부 조사후 의법조치. 중앙선관위와 법규위 직무유기 경고.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월주스님 ◇혜초스님 ◇홍파스님 ◇성타스님 ◇법산스님 ◇서돈각박사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종립학교(10구좌) △최혜초 태고종총무원장: 보문고 정광중 · 고 홍대부중 서울과학고(5구좌) △이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종로구내학교(3구좌) △이성타 조계종포교원장: 종립학교(2구좌) △이법산 동대정각원장: 종립학교(3구좌)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2구좌) △하혜정스님(문수사): 청담학원(1구좌) △박혜문스님(황룡사): 천안여고(1구좌) △이광택: 미술학원(1구좌) △이존영: (1구좌) △김현식: 미술학원(1구좌) (4월4일 현재)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급방법: 직접 방문 기증 · 화물수송 · 수용학교 직접 수령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특집 포함 20면 발행
불교전문서점 제자리 찾았다 7면
청주인쇄문화축제 현장 8면
도심사찰 재개발 피해 심각 1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정양장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총칭으로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律)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論)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舊版) 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발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87년까지 무려 일십육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그 무량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八公山) 부인사(符仁寺)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친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서울의 지천사(支天寺)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 권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리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통례대로,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품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반야심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의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처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않는 마음의 뜻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력앞에서도 꺾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불굴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

사 설

청소년 교화와 미래불교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청소년 교화는 곧 불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청소년 포교가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설된지 30주년이 되었다. 일찍이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던 석주스님과 운문스님, 그리고 안병호거사와 황해진거사 등 몇몇 뜻있는 선각자들이 청소년교화의 간절한 원력을 세우고 개인주머니 쌈짓돈을 털어 청소년교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어언 30년이 지난 오늘 현성스님이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에 등록하고 몇몇 뜻있는 스님들과 거사들의 회비로 17개의 지부를 운영하며 어렵게 불교청소년교화사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청소년 포교는 다른 종교에 비한다면 어느 일면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뒤떨어져 있다. 만약 앞으로 계속 청소년 교화가 소외된다면 불교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그래도 조계종 포교원에서 올해를 청소년의 해로 제정하고 청소년 교화사업에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 뜻을 보인다는 점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미래지향적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를 시작의 계기로 삼아 1년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교화사업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같은 바람 속에서 청소년 교화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공감대로 하여 모처럼 조직적인 청소년 교화활동 30년만에 뜻을 세운 종단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최후불종자(最後佛種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첫째 스님들의 인식문제다. 청소년 교화는 스님들이 어린이를 좋아하는 마음부터 내어야 한다. 신도들이 절에 올 때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같이 믿는 불교가 되고 가족법회, 청소년 법회를 하여 우선 각 신도 자녀들부터 철저한 불교신도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사찰에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절에 가면 어른이 기도할 법당은 있지만 청소년이 법회를 보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 청소년 교화에 대한 예산,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종단적 지원과 사찰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전문인력의 절대부족이다. 교육에는 스승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육성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승려 기초교육에도 청소년 교화방법이 필수적이어야겠지만 종립학교에 유아교육과를 설치하여 불교어린이 지도자를 증점 양성해야 한다. 일차 종단적 차원에서 각 사찰에 청소년 지도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성불자들의 각성이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불자인 청소년은 많지만 본인이 불교를 믿는다는 청소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위 '대리신앙'이 문제이다. 기도나 수행도 자기가 하는 것이요,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도 각기 자신의 문제이다. 속담에 '소뿔도 각각이고 염불도 목목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의 종교를 대신 믿고 엄마만 기도하면 아빠도 자녀도 모두 만사형통할 것으로만 믿고 있다. 물론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자아완성의 성불로 나아가는 불교의 신앙형태는 아니다.

종단과 청소년교화연합회가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 신심을 낸 '불교청소년의 해'에 불교의 새싹이 푸르름을 더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불국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열린마당 종교소재 광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광고홍수 속에 최근 종교를 소재로 하는 광고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스님·수녀 등 종교인들이 등장하는 이같은 광고는 특이한 소재와 참신함으로 눈길을 끌며 국제광고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교 소재의 일반상품광고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광고 관계지와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화면에 표현되는 청정함 인지도 높여

이 주 명 〈코래드 광고기획팀 AE〉

광고는 이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광고의 소재는 인간의 일상생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종교도 또한 인간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교는 인간의 내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근들어 광고계에서도 종교적인 소재를 통해 획기적이고 참신한 광고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다.

종교를 소재로 한 광고의 장점은 단순한 광고이상의 의미를 득자 스스로가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소재를 광고의 모티브로 사용하는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광고로 종교를 다루기에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직접적인 표현이나 내용보다는 제품 이미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간접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이미지상을 표현해 내는 경우가 많다.

대우전자 청소기 '산사' 편은 그러한 이미지를 고려해 만든 광고이다. 이 광고를 기획할 당시 우리사회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등 갖가지 문제로 무척 시끄러울 때였다. 그러한 사회현실 속에서도 단아하고 고요함을 잃지 않는 산사의 모습을 통해 소음없는 대우전자 청소기의 기능적 특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 그러한 점이 종래 동적이고 요란한 다른 광고들과 다른 신선하고 독특한 느낌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던것 같고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제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에서 6백여 타 광고를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수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적 정서에 맞는 제작이 선결요건

한 수 진 〈주부·종로구 팔판동〉

TV를 보다 보면 광고보는 재미도 배놓을 수 없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톡톡 튀는 기획광고를 보면 드라마 이상으로 재미있을 때도 있다. 요즘 광고에는 스님과 동자승, 또는 수녀님 등 종교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부쩍 눈에 띈다.

참선하는 스님과 동자승이 나오는 과자광고와 핸드폰 광고는 즈음한 선방과 동자승의 익살에 눈이 저절로 간다. 또 티벳스님들이 등장하는 광고는 수행자와 최첨단의 컴퓨터가 역설적으로 인상 깊다. 예쁘장한 수녀님이 익살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과자 광고도 재미있다. 나같은 불자는 그러한 광고가 나오면 일부러 채널을 고정시키고 유심히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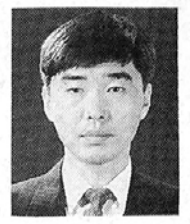
이같은 광고는 시청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종교인들의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광경을 연출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별 생각없이 TV를 보는 일반인들은 광고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꾸밈없는 친근한 표정에 상품을 더욱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스님과 수녀 등 종교인들은 거짓이 없는 사람들로만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서도 대부분 "재미있다"고 한다. 불자이며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는 불교적 소재의 광고로 인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불교에 호감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다. '대중과 친근한 불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불교를 잘못 왜곡하는 광고가 나올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종교적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같은 소재의 광고가 더욱 많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

전문가 의견

유 창 조 〈동국대 광고학과 조교수〉



신뢰성등 메시지 전달 효과 커
왜곡여부·사회적 영향 검토돼야

일반 상표의 광고에 종교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첫째, 정보원천의 신뢰성에서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면 할수록 광고정보의 수용도가 높아진다. 종교인은 일반 사람에 비하여 비교적 신뢰성이 높고 믿을만 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광고에 종교인을 등장시켰을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설득력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설정으로부터 광고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일반상표의 광고에 종교인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특이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이 갖는 권위에서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권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를 제작하는 담당자는 종교인을 광고에 등장시킴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종교인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광고자체가 외면당할 수 있다. 보다 관심을 많이 끌어보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관심을 차단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특이한 상황을 설정한 광고가 시청자에게 주요 상품정보에 대한 전달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종교인이 등장하는 광고는 기억하지만 정작 무슨 상표의 광고인지 또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특이한 상황설정으로 인해 광고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광고내용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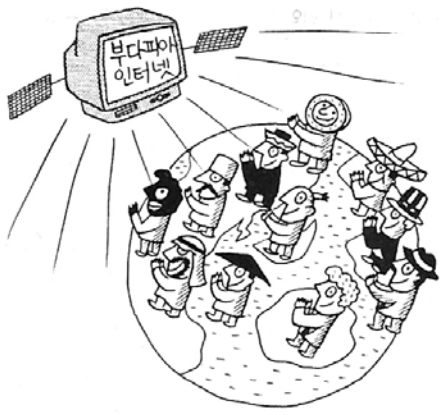
그러나 광고는 일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고가 특정 종교 또는 종교인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종교인을 등장시키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경우 더욱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진지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종교인이 등장하는 광고는 특정 종교의 참모습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또한 광고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나 장면 역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청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모르나, 그에 따른 특정 종교집단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비례하여 커질 수 있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인을 광고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은 고려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광고 효과만을 놓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특정 장면 또는 내용의 전개가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교를 믿고 신뢰하는 신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광고인의 윤리적인 책임일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지구촌 방방곡곡에…

목어

"먹을 것을 사주거나 문구를 선물하거나 돈을 주는 후보는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 반장선거에 나선 한 유권자 어린이의 말이다. 중심이 잡힌 아주 의젓한 이 말은 요즘 총선에 임하는 우리 어른들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어른들은 왜 선거에서 남을 헐뜯고 금품공세를 펴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픈 곳을 한번 더 찔렀다. TV에 비친 그날 그 초등학교의 투표현장에는 지켜보는 선생님도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율적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4월11일 제15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유권자수는 3천1백49만5천3백81명이다. 이들 유권자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의사당에 들어가 국사를 논할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곧 유권자들이 국사에 참여하는 주권행사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상식'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나갈 후보자나 뽑힌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을 만드는 유권자의 주권행사 즉 한표가 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 따라서 '한표'는 돈·학연·지연·종교인연등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대단하다.

한표의 '業'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는데 있어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돌아온다. 국회의원을 만든 사람은 유권자이므로, 또 그 책임은 국회의원 임기인 4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4년동안에 논의된 일이나 그 업이 두부모 자르듯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말이 있듯, 유권자의 관단은 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 뽑아놓고 나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푸념을 해봤자 이미 때는 늦는다. 뿐만아니라 그런 질책은 곧 '제 얼굴에 침 뱉기'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선거는 신중히 치뤄야 할 국민의 공업(共業) 행사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업이 과보를 어기지 않고 과보가 업을 어기지 않는다'는 화엄경의 말씀을 새기면서 11일 투표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우정의 의미

항상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첨하면서도 벗의 결점만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숫타니파타〉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여성불교회 회장 변 광 순

高麗大藏經 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 영구보존사업

경판의 자연상태보존이 한계에 이르러 선조들의 정성에 현대과학의 힘을 가미하여 영구보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에는 영상화 작업과 보존대책수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판과 판고에 대한 영상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경판 낱개별 화면처리로 필요에 따라 영상을 통해 원판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의 보존문제로 훈증소독등 단편적 처방보다는 종합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태녕 박사를 팀장으로 하여 98년까지 보다 과학적인 심층진단을 실시한 뒤 완벽한 보존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대장경홍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팔만대장경의 진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범 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장경 전산화 작업

팔만대장경이 컴퓨터 입력작업을 통해 CD-ROM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입력작업은 1994년초에 시작되어 2년여만에 총 5천2백80여만자에 이르는 본문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은 교정과 표점작업, 검색프로그램 개발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산화로 대장경의 대중화 세계화의 길이 열리게 되며 학문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사상계의 영역확대 등 폭넓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 본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683 - 139 (하이텔, 천리안, 나우컴 ID:hederein)

김포·안성 놓고 부적합 잇단 공방

조계종 제120회 중앙종회에 상정돼 종단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던 중앙승가대학 이전건이 마침내 중앙승가대학 이사회가 검토 및 최종 결정후 종회에서 의결토록 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케 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전계획 다시 원점

부지협소·항공기소음 심각 김포 추가 매입비용 80억원 안성

교육 백년대계 위해 종단·학교 신중 결론을

중앙승가대학이 당면한 과제는 정규대 승격이다. 이는 학사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김포 또는 안성부지의 논란은 '정규대 승격'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백년대계인 교육불사를 여법하게 이뤄내기 위한 공방인 셈이다. 중앙승가대학 이전 공방은 제118회 종회에서 '중앙승가대학의 정상화와 이전불사의 범종단적 추진을 통한 성공적 회향'을 목적으로 구성한 중앙승가대학 대책위원회가 학교이전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두됐다.

대책위는 종회에서 김포부지의 문제점으로 총면적 5만3천여평 중 가용건립면적은 42%에 불과, 부지협소를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금정사 상공에서 선회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공해, 산림훼손,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김포 주변지역의 개발로 빚어지는 유해요소의 산재를 난점으로 제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안성 건화 목장지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중앙승가대학 학생 동문 교수측은 80여억원에 달하는 안성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확보의 문제, 불교계의 대정부 공신력 등을 들어 안성부지의 적합성에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김포부지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는데 2년6개월 소요된 점을 미뤄 안성부지로 변경할 경우 장애가 없더라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와 동문 교수측은 김포부지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교이전의 연기나 변경이 정규대 승격과 이전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지에 대한 공방이 일고있는 가운데 중앙승가대학 학생 동문 교수측은 지난달 26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암동 현 캠퍼스에서 정규대 승격을 준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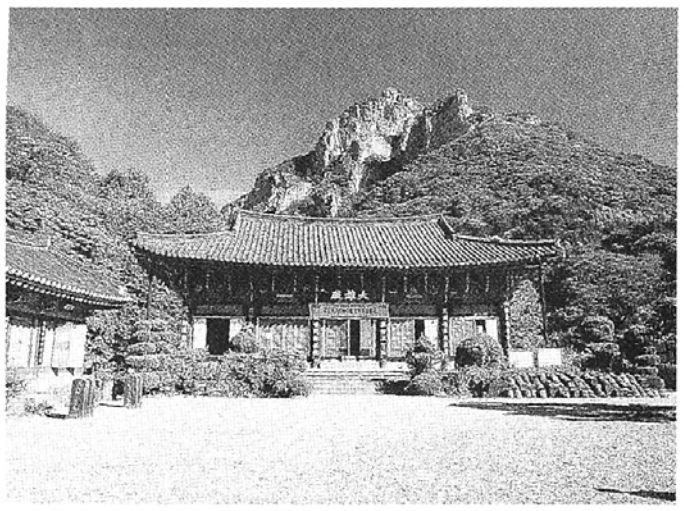
중앙승가대가 3월16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된 대학설립기준령을 근거로 정규대 승격을 준비한다면 안암동 캠퍼스에서도 정규대승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입법예고안에 불과하며 4월 중순경 공포될 령에 근거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중앙승가대학의 이전부지로 김포와 안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스님들의 중앙승가대학 정치세력화 구도, 사리에 급급한 일부 스님들의 술책 등 그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를 지적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종회에서 승가대 이전건을 학교이사회에 넘긴 것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척임지지 않겠다'는 떠넘기기식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승가대학 이전불사는 승가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 종도는 승가교육의 질적향상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불사가 한참 활기를 띠었을 때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많은 출가 재가자들은 반찬값을 아껴 한푼두푼 모아온 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도 했고, 한평생 모아온 돈을 기꺼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전 종도의 동참과 기대는 아랑곳 없이 표류하고만 있는 중앙승가대학의 정규대 승격과 이전불사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종단과 학교당국, 이사회는 감정의 고리를 풀고 중대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론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단 학교차원의 지원과 대안제시 뿐만 아니라 전 종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등 중지를 모아 미래불교의 토대가 되는 교육불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필선 기자



◇백양사는 6·25때 소실된 선원·율원을 복원, 50년만에 고불총림의 맥을 잇게 됐다.

백양사 고불총림 설치 의미

종합 수행도량 활성화 자극제

율원·염불원 설치계획 … 서옹스님 선풍 기대

이번 조계종 120회 종회에서 백양사 고불총림(古佛叢林) 설치가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해인사 해인총림(방장 혜암), 송광사 조계총림(방장 승찬), 통도사 영축총림(방장 월하), 수덕사 덕숭총림(방장 원담)과 함께 5대 총림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대적 총림의 시작은 1960년대 초반, 당시 국내 최고의 강원과 선원을 운영하며 종합수도도량으로서의 공식적 발족이 불가피했던 해인사가 총무원에 총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가를 요청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67년 조계종 제 13회 종회에서 총림설치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해인사 가야총림을 승인해 첫 총림이 출범했다. 해인총림은 초대방장 성철스님에 이어 그암(2대),성철스님(3·4·5대)에 이어 현재 6대방장은 혜암스님이다.

해인총림에 이어 69년 승보종찰 송광사도 청담스님을 총림발기위원장으로 취봉, 구산스님등이 원력을 세워 조계총림을 개설했다. 당시 송광사는 8백년 전통의 선원 수선사의 맥을 살려 초대방장에 구산스님(1 2대)이 추대됐다. 이어 승찬스님(3대)이 1백여 대중을 지도하고 있으며 총림으로는 유일하게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해 오국인 납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법보, 승보종찰에 이어 불보종찰인 통도사와 예산 수덕사가 84년 영축총림, 덕숭총림을 각각 설치했다. 영축총림은 현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초대부터 방장으로 추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덕숭총림은 열반에 든 혜암스님에 이어 벽초스님이 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담스님이 제방의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다.

총림은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수도장으로 부처님 당시의 정사(精舍)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총림으로 변형됐다. 특히 백장선사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청규를 세워 총림의 선농일치를 강조,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 염불당을 갖추어 근기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다.

총림은 '총림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법주사 범어사 불국사 쌍계사 등의 본사급 사찰도 총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종회에서 67년 해인사총림설치에 따라 제정한 총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결의해 총림의 난립방지와 총림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총림설치 승인으로 옛 고불총림 복원과 전 종정 서옹스님의 선풍 진작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고불총림은 1947년 전 종정 만암스님이 일제하에서 한국불교의 선양을 위해 전라남북도 10여개의 사찰을 규합, 최초 개설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선원과 율원 본사일부가 소실되어 중단되었다가 80년대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단행해 이번에 복원하게 됐다.

백양사 고불총림은 현재 운문암 운문선원(상선원)과 설선당(하선원)이 선원으로 7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향적전에 6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강원이 자리해 있다. 또한 화엄전을 율원으로 약사암과 청량원에 염불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양사는 오는 10일 문중회의를 통해 서옹스님을 초대방장으로 추대, 금년내에 총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옹스님은 조도(祖道)를 선양하는 조사가풍과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창하고 있으며 생사는 물론 모든 욕망과 이성에 걸리지 않는 '절대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시 론

미륵보살의 향훈

전국의 중·고등학교 어디에서나 미륵보살반가상을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반가상을 보고 소묘연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를 체득하면서 어느 정도 자긍심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구문화 우선주의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던 차였다. 이렇듯 학교에서 일기 시작한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 바람은 곧내 전 사회적으로도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리게 되었다. 누구나 환희심으로 가득차 있다. 짜증스런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샘솟기 시작했다.

서양석고상 왜 못버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꿈이다. 세상은 꿈과 반대의 언덕에 있다. 미륵보살의 향훈으로 충만한 사회. 그것은 정말 꿈에 불과한 것일까.



윤 범 모
〈미술평론가·경원대 교수〉

미륵세계의 도래는 그렇다고 치자. 미술실의 데생용 석고상 가운데 '국산품'이 놓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 미륵세계의 도래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문제로 하자. 하지만 미술실의 석고상 가운데 우리의 것 하나쯤 '추가'시키자는 제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이론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나 역시 서양 석고상 철폐주장을 외치기 시작한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양 석고상으로 초심자들에게 묘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사물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태도의 밑바닥에 서양적 사고방식으로만 물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서양 것은 최고이고 우리의 것은 볼품없다는 열등감내지 자조감을 동반시킨다. 한국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린 그림이 서양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사가 서구 우선주의에 기인한다.

현재 미술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선발기준의 중요과목으로 석고데생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미술대학이 서양 석고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데 있다. 상당수의 미대 교수들도 이해한다. 서양 석고상에 의한 묘사훈련 방식의 폐해를. 그러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식민지시대부터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아직도 청산할 줄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조차 버려진 낡은 관습이다. 아니 석고상의 본산지인 그리스 로마를 비롯 구미 각국에서도 폐기한지 오래다. 세계에서 한국만이 서양 석고상에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전국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재용으로 미륵반가상 보급을 전개하고 있다. 참신한 발상이다. 특히 서양 석고상의 폐해가 극점에 달한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하기야 반가상이라면 굳이 미술교재용으로만 한정시킬 내용도 아니다. 현대인의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반가상같은 걸작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분위기가 새로워질 것이다. 보급 대상품은 국보 83호 반가상이라 한다. 이 작품은 6~7세기 동양 최고의 대표적 불교조각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깊은 법열(法悅)에 빠져 사유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세계조각사에 당당히 기재될 우리의 숨결이다. 종교적 측면이외에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결코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전국 보급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타종교와의 마찰, 미술교사의 몰이해, 원작의 60% 정도 축소와 FRP 재료에 의한 복제상의 기술문제 등등이 염려된다.

반가상보급운동은 일종의 서구추종주의자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전국의 4천5백여 중·고등학교에서 과연 몇%나 환영하며 반가상 기증을 접수할지 의문도 든다. 또 학교 '비치품'으로 접수했다 치자. 과연 미술 담당교사의 몇%가 데생용 교육자료로 활용할지 감이 안 잡힌다. 아마 초기에는 강한 외면 속에서 보급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 반가상의 조형적 특성으로 볼때 초심자의 데생용으로는 애로점이 적지 않다. 완만한 곡선에 유려한 모습은 쉽게 묘사될 수 없을 것이다. 입체적 얼굴모습으로 묘사훈련을 실시하던 '보수적' 미술교사로 하여금 불쑥 반가상 소묘를 제시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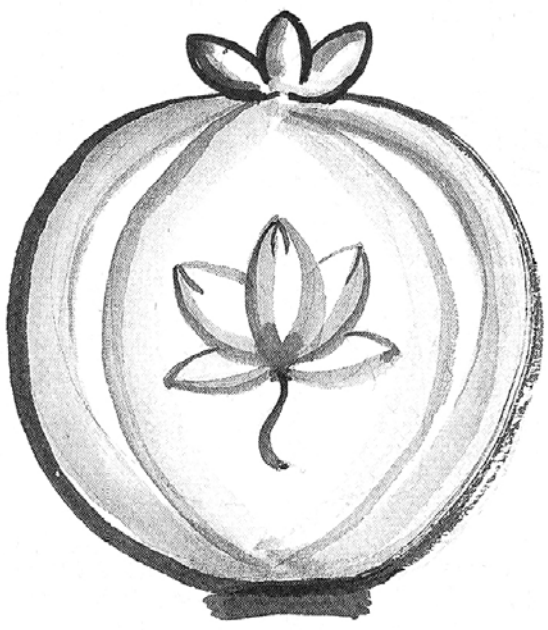
문화운동 함께 전개해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명분 때문에 마지못해 인수해 놓은 반가상 복제품을 학교의 의진 구석에서 먼지나 쓰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만든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사전에 이와같은 불상사를 예비해야 한다. 보급운동과 병행하여 문화운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와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사업을 꾸려야 한다. 사실 반가상 연구사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학계의 실정이다.

반가상의 석가보살과 미륵보살문제, 특히 사유상이 왜 미륵보살인지의 문제, 삼국 가운데 제작국가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등 숙제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부끄러움 투성이 속에 거국적 반가상 보급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종단의 새 바람을 기대해 본다. 꿈은 도전하는 자에게 더욱 아름답게 실현된다.

생활 속의 불교 ⑥⑨

그것은 모두 그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은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시작과 끝도 없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도 없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흔히들 안에 있겠거니 하지만 두뇌 속에 있다거나 심장 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무엇 - 시간도 뛰어 넘고 공간도 초월한 것, 허공 같은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언급될 뿐이다.

가르침은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우주 삼라만상도, 부처님도 하느님도, 천국 지옥도 다 마음이 있음으로써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곧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 갖춰져 있음이다.

따라서 마음은 신령하기로는 한이 없고 능력은 끝을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다 해도 마음의 힘만 못할 것이며 저 태양이 제 아무리 밝다 해도 마음의 빛만 못할 것이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건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고 마음을 쓴다. 주고 받고 감싸고 기울이고 모으고 가라앉히고 내고 돌린다고 한다. 어느 때는 또 마음이 아프다 병 들었다 하고 벽차다, 뿌듯하다고도 한다.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누구나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하게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광대무변한 능력을 잊고 산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한한 힘이 있음을, 일체는 마음 바탕 위에 있고 마음 밖에 따로 언급할 게 없음을 믿지 않는다. 고작해야 내 마음, 네 마음이라는 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고 만다. 그걸 내키는 대로의 내 마음 살림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심지어는 몸 살림 따로 마음 살림 따로라며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마음을 좁디 좁은 울타리에 가둬 놓고 거기서 다시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고장이 나면 마음은 그저 팔짱끼고 아파할 뿐 할 일이 없게 된다. 마음은 능력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하게 된다.

마음에는 그 어떤 자력보다 큰 자력이, 그 어떤 광력보다 큰 광력이, 그 어떤 전기력보다 큰 전기력이 있다. 고로 어디에도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한 힘이 마음의 힘이다. 우주의 구석구석 못 미치는 곳이 없고 우리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닿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곳은 없다. 마음의 통신력은 그야말로 무한대이다. 그러기에 가령 몸이 아프다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유의 힘은 누구랄 것도 없이 바로 그대 자신 안에 있다.

마음으로 띄운 통신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전달되었다고 하자. 국가적인 위난시에 온 국민이 총동원되어 이를 극복하듯이 내 몸의 병도 그렇게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의 힘이다. 더욱이 형상으로 말한다 해도 모든 세포는 한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요, 병의 근원 또한 다르지 않으니 이미 병과 몸이 둘이 아니며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지 않은가. 현대의학은 다만 방편일 뿐 치유는 마음의 몫이다.

가르침이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법공부의 처음이자 끝이다.

협찬 : 남 은 지

법회 안내

보생선원(02)928-0475

신중기도 1일(음) 오전10시30분
보생기도 7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기도 18일(음) 오전10시30분

보리사(02)562-9939

초하루법회 1~3(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송광사포교당(0694)857-232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중·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용천사(02)642-207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칠성재일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목련불교학생회 매주 일 오전11시

성룡사(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오후2시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청평사(0361)54-1092

신도법회 1·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동도사(0335)33-7417

초하루인등법회 18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등사(02)355-4148

일반법회 매월3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불교포교당(0634)33-28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첫째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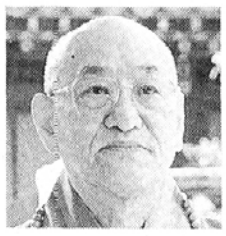
실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이젠 사회전체에 福 쌓을때"

속가재산 40억 출연 복지재단 세운 능가 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스님이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펼치기위해 속가재산 40여억원을 출연,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충청북도 괴산의 대지주 집안 종손으로 태어나 1948년 범어사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능가스님은 최근 속가재산 전액을 '이웃돕기 삼보재단' 설립에 쾌척(快擲)하고 부산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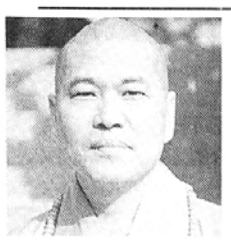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기복(祈福)불교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보시하는 수복(修福)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복이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사회전체의 복을 위해 선업(善業)을 쌓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시대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구, 경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능가스님은 이번 복지재단 설립 이전에도 종교와 관계없이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8명의 맹인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남모르는 이타행을 실천해 왔다.

부산=박병근 기자

"전통 조사가풍 맥잇게돼 기뻐"

고불총림설치 백양사 주지 지 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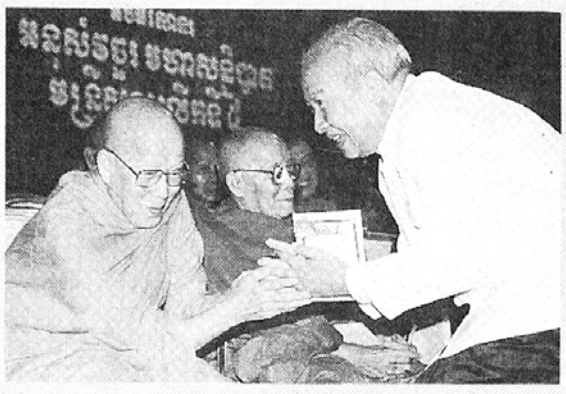
"뒤늦게나마 전통 조사가풍을 이어온 서옹 큰스님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총림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백양사주지 지선스님은 "고불총림설치는 교세가 약한 호남지역 불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호남뿐 아니라 한국불교 선풍이 크게 진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백양사에는 서옹스님이 5일마다 한 번씩 벽암록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고 소개하고 "고불총림은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명안조사가 주석해 있기에 눈푸른 납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조사가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94년 10월, 백양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총림설치를 준비한 지선스님은 사세가 약하다는 지적에 "도량불사로 면모를 일신해 총림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동안거에 50여명의 납자가 찾아와 주지실까지 선방으로 제공했다"며 "주지로서 수행대중을 철저히 외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시아누크 프놈펜 승려대회 참석 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이 2일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승려대회에 참석, 올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고승 마하 고사난다와 인사하고 있다.



◇로베르트 바조



◇리처드 기어



◇레오나르드 코헨

외국인 불자스타 활동 '눈길'

미국의 인기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캐나다 팝 가수 레오나르드 코헨, 이탈리아 축구선수 로베르트 바조 등 세계적인 불자스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절친한 사이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는 티베트에 대한 유럽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브뤼셀의 유럽연합(EU)본부를 찾아 〈티베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티베트의 독립을 위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팝계의 시인으로 불리우는 캐나다 가수 코헨은 미국 캘리포니아 발디산의 수도원에서 매일 참선과 울력을 하는 수행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94년 월드컵에서 화려한 경기운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불자 축구선수 바조는 이달부터 대웅제약 비트모델로 국내 TV광고에 등장한다. 바조는 오는 5월24일과 27일 열리는 AC밀란:한국국가대표팀 경기에도 출전하며 이들간 괜사인회도 가질 계획이다.

바조—국내 광고 출연
기어—티벳 독립지원
코헨—참선 수행생활

교 차 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참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일 사회 각계원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에 참석, 정치지도자와 후보, 유권자가 모두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토록 촉구했다.

용화사 용화보전 낙성법회



월탄스님(청주 용화사 주지)은 지난 1일 용화보전 낙성회향법회를 거행했다. 1일부터 8일까지 봉행된 회향법회는 삼천불 5층세존사리탑점안법회, 고승초청법회, 미륵십선계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승가원 이사장 재선



송산스님(중앙승가대학장)이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선임됐다.

해외 홍법원장 서울 대법회



성해스님(뉴욕 불국사 주지)은 지난 6일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한국불교 해외홍법원장 초청 서울대법회를 봉행했다.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법회에는 태연스님(일본 고려사 개산관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양동수법사 초청법회

종월스님(일산 마하사 주지)은 지난 7일 사형수출신 양동수법사를 초청해 '어머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도안사 주지 취임

원일스님은 지난달 31일 조계종 도안사(대구시 수성구) 낙성식법회를 갖고 주지로 부임했다.

미주불교방송서 특강

박완일씨(전 전국신도회장)는 미주불교방송 중흥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강연회에 특별강연차 오는 19일 도미. 미주불교방송 초청으로 LA 옥스포드호텔에서 20, 21일 두차례 강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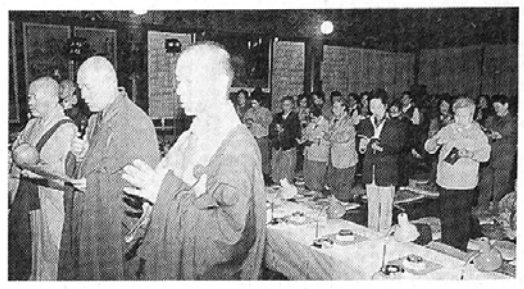
불교방송 상무에 피선



송병욱씨(전 불교방송재단사무국장)가 3월 26일자로 불교방송 상무(방송·관리총괄)에 선임됐다.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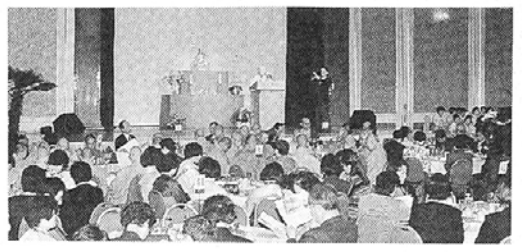
동국대 △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정필현 △분당한방병원 개원준비위원장 이원철



대각사 진신사리친견 및 열반절 법회

서울 봉익동 대각사(주지 도문)는 지난 2일 대법당에서 열반재일기념 부처님진신사리와 목련존자 사리친견 및 출가·열반절대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돼 이날 회향한 법회에서 도문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뜻을 되새겨 신심을 돈독히함은 물론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삼천사 인덕원, 복지관건립 자선법회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종합복지관건립을 위한 자선대법회를 지난달 30일 롯데호텔에서 봉행했다.

법요식·공양·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월탄 법장 일면스님을 비롯 김명윤 박완일씨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복지관은 97년 3월 2천여평의 대지에 건물 2동 건평 7백여평의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군승단 예비역 법사초청 간담회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지난달 29일 군승단 백상홀에서 '군포발전을 위한 예비역 군승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현, 송병욱, 권오성, 임자광법사등 30여명의 예비역 군승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부자료를 통해 군승 1백명, 군법당 총2백94개, 법당 신도수 16만6천9백여명이라고 밝혔다.

채시라씨등 동국대 동문연예인 5명 CF광고료 2억 모교 발전기금 기탁



◇홍학표



◇채시라



◇김현아



◇홍경인

지난 2일 촬영한 '빠리바게뜨' CF에 인기절정의 동국대 동문연예인 5명이 "2억원의 광고출연료 전액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홍학표 채시라 김현아 유하영 홍경인씨 등 5명의 연극영화과 졸업, 재학생 연예인이 나란히 출연한 이 광고는 동국대학 이미지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학교 명예를 위해 각계에서 활약중인 동문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촬영에서 이들 연예인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일에 동참하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아 돈독한 모교사랑을 과시했다.

김원우 기자

게시판

▲어린이 유적답사=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14일 승주 선암사와 낙안읍성 민속마을 일대로 제13차 어린이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062)263-4660

▲구산선문 사찰답사=법련사는 19, 20일 이틀간 구산선문 사찰을 답사한다. 강사는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과 최연식 서울대 강사. (02)733-5315

▲장의예식봉사 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 자원봉사센터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장의예식봉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 (02)723-5101

▲지하철역 봉축등달기 신청=봉축기획단(단장 법타)은 20일까지 지하철역에 봉축연등 달기를 원하는 사찰의 접수를 받는다. (02)725-6641

이전 지비의 전화(회장 정덕) 종로구 인사동 9 남양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02)737-7378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72호 4면 총선출마 동정 내용중 '최승렬'을 '최병렬'로 바로잡습니다.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 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힘껏 남을 먹여 살리는 마음을 내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지면 우주와 통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우주물건이
그냥 우주화된다. 원래 동서남북이 없는 것인데 그게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하는 놈이 주인이 되고 우주 지혜는 그만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사를
설명하고 무엇이라 결정을 내리면서 지혜를 가로막는 일에 열심인 것이 인간들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1쪽 값8,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 번째 책 신국판 279쪽 값8,0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 2동 138번/ 전화 (0762)61 2231/ 서울 연락처 (02)742 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73 0172, 0173/ 팩스 (02)723 0036
금강경 독송회/ 서울 혜화빌딩 (02)742 0172/ 포항 수원동 법당 (0762)47 0172/ 포항 금강정사 (0762)61 2231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범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燁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燁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燁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빛살' 드러내려 새기고 써요

산문밖의 禪

서예가 김 양 동 씨

"깨쳤을때 뇌리를 치는 것은 섬광이듯 삼라만상은 해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려는 거죠"



刻-書-畫 경계 넘나들며 한국적 토속미 표현
정적인 '먹'과 동적인 '붓'의 조화 '墨禪의 경지'

두달전, 언론에서는 경쟁이나 하듯 한 서예가의 전시회를 소개했다. 모두들 '탈 장르, 각(刻)-서(書)-화(畫) 경계를 넘나드는 서예의 혁명'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전시회의 주인공은 근원 김양동교수(近園 金洋東 · 계명대).

입문 26년만에 첫 개인전

그의 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이 투영된 작품이 있다기에 전시장을 찾았다. 김교수가 선보인 50여권의 작품들은 제작기법이 특이했다. 물 먹인 한지를 구겼다가 말려놓은 것에 그림과 글씨를 쓴 것 같아 서예작품이라 말하기는 어딘지 어색함이 있었다.

실제로 김교수의 작품은 단순히 붓으로 글씨를 쓴 것이 아니었다. 먼저 옹기굽는 흙으로 빚은 도판(陶版)에 전각이나 그림을 새겨 가마에 굽는다. 그리고 그 위에 1백년은 족히넘는 한지를 덮어 탁본을 뜨고 요철부위에 채색하여 형상을 만들어 글씨를 곁들인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고대신화, 전설, 민속, 설화, 원시신앙 및 상고시대문학과 노장사상, 불교사상 등을 작품소재로 선택해 한국적인 토속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가보아도 작가의 연구와 실험정신을 느끼기에 충분한 작품들이었다. 더구나 이렇듯 주목받는 전시회가 김교수의 서예입문 2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개인전이어서 더욱 이채로웠다.

"내 작품을 보고 모두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말들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기고 쓰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단지 새기고(刻) 쓰고(書) 그리는(畵)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를 종이한장 위에 담았을 뿐입니다."

김교수의 스승인 철농 이기우(鐵農 李基雨)선생은 글씨를 배우겠다는 그에게 '먼저 서예를 터득하고 전각을 배우라' 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먹에 대한 이해(용묵), 붓의 탄력에 대한 이해(운필) 그리고 종이에 대한 이해를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자법(字法) 장법(章法) 도법(刀法)을 알게 되었고 기교를 즐기되 함부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글씨를 쓰다보니 문자를 알아야 했고 금석문을 접하다 보니 직접 전각을 했던 것이다.

성현의 말씀이나 시인의 시구를 어떠한 서체로 화선지에 옮길까를 고민하던 김교수는 작가의 의도나 주관적 내용을 화선지에 살려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것이 서예는 아닐텐데." 그러나 이것보다도 그를 짓누르는 커다란 의심덩어리가 또하나 있었다.

"왜 쓰는가." "새기고 쓰는 나는 누구인가."

3년전, 문득 빗살무늬 토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토기에 빗살무늬를 새긴 원시인과 화선지에 글씨를 쓰는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원시인의 사유세계를 상상했다.

"태양은 곧 신(神)입니다. 원시인들은 공포의 대상을 걷어간 태양에 대한 외경심을 토기에 새겼습니다. 흔히들 빗살무늬토기라 하는 빗살은 태양의 햇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빛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의 이번 전시회 작업은 빛살을 드러내는 일 이었습니다."

신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고자 했던 김교수가 '빛살'을 찾은 것은 또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실패 겁내면 옹졸해지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 또한 부처가 그러하다. 가장 '인간다운 이' 부처가 발하는 광배가 말해주지 않는가. 고대신화나 전설 민속등은 김교수에게 있어 빛살의 새로운 표현일 뿐이었다.

누군가 김교수에게 "언제 그림을 배웠소"라고 묻기에 "석기시대 사람들이 데생 배워서 했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원시인의 생각은 삿되지 않고 순수합니다. 삼라만상은 해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의 어둠을 털어내는 것이 수행이지요. 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것도 원시인이 빛을 갈구하듯 해야합니다."

김교수는 가장 불교적인 색을 먹빛으로 생각한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집합한 것으로 색아닌 색이다. 만색을 함유하고 있어서 또한 만색을 나타낼수도 있다. 그러기에 먹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필묵할 때 최고의 경지는 선정(禪定)의 경지에서 쓸 때이다. 선필(禪筆)은 최고 이상을 구현하는 서예의 경지이다. 정적인 먹과 동적인 붓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묵선(墨禪)이 된다.

실패없이 해야지 하면 글씨가 옹졸해지고 잘 써야지 욕심을 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조용하고 시끄럽다는 장소에 구애하지 않고 손과 마음에 맡겼을 때 흡족한 작품이 나온다.

김교수는 '선(禪)이란 가지를 쳐내고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 설명한다. 화두를 드는 것도 간단하게 되고자 하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깨쳤을때 뇌리를 치는 것은 섬광이다. 김교수에게 있어 묵선은 이 섬광의 빛살을 표현하는 것이다.

김교수의 전시장은 근래 보기드물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현대판 원시인 김양동. 누가 빛살찾아 묵선하는 그의 진면목을 보았을까.

이준엽 기자

제가 아프면 스님도 아프신지요

문 불법에서는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스님들 중에도 불이법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제가 뺨을 맞았는데 스님이 아픕니까? 〈이성태 · 서울 종로구 내수동〉

답 유마거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고 하셨지요.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세계 전체를 한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해봅시다. 각각의 생명체를 잎이라고 하겠는데 그 잎새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빛을 가리게 된다면 중생끼리 다투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따지고보면 그 잎새들은 다 한뿌리에 의지하고 있으니 둘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치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투는 격인데 만약 그렇게 다툰다면 하나임을 모르는 탓이겠지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근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처사님이 아프면 스님도 아프지요. 그러나 상으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픈 중에도 아프지 않음이 있으니 마음은 깊이 고요하고 묵묵한 까닭이며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픈 눈물이 항상 흐르는 것은 또한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마음바탕은 적정이지만 하나하나 일에 응해서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깊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중도라는 뜻이지요.

아무튼 이 공부를 하시면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눈을 안으로 돌리지 않고 밖으로 돌리면 불이법 마저도 번뇌가 된다는 점입니다. 잎과 잎이 뿌리를 의식하지 않고 잎으로만 서로를 의식한다면 왜 부딪치느냐, 왜 빛을 가리느냐 하고 다투겠지요. 불이법은 상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상의 근본이 되는 한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근본을 알면 상 또한 둘이 아니지요.

경계를 둘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위대한 부처님 세계에 동참하는 길이요 세속적인 이익이 아닌 크나큰 이익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유인이란 어떤 경지입니까

문 스님께서는 늘 마음공부를 통해 자유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유인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준영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답 해탈의 경지를 어찌 말로 이르리까. 그러나 이왕 물으셨으니 한마디 하지요.

중생이 늘 보고 듣고 겪으며 살아가는 이 유위법의 세계와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위법의 세계를 다 보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하! 차원이 다른 또하나의 세계가 있나보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 세계를 다 본다함은 하나를 본다,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이 공부를 하면 남다른 신통력이 생긴다고 아는데 하나인 경지에서는 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다 내살림이니 거슬리고 부딪히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여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찰나찰나 다가오는 모든 세상일과 하나인채로 저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유인이라 함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듯이 전체가 내 살림이니 거칠게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면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나'라는 관념이 없으니 그냥 전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 합니다. 자유인이면 새삼 자유다 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절 운영이 잘될지 걱정입니다

문 30년 불지입니다. 이제 회향하는 뜻에서 사찰을 지어 어느 스님께 시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점찍어 놓은 절터가 좋은 자리인지, 지어놓고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양영문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답 좋은 절터, 나쁜 절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가르침을 따르셨다면 그런 것쯤은 이제 아실 때도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지를 걱정하신다는데 그 또한 욕심이니 버리세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비록 거지라도 하루 세끼는 먹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욕심 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교계신문에 부적광고가 실리는데…

문 신문에 나는 광고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는 불교언론지가 부적 광고 따위를 실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전 광고엔 무슨 도예품 개발에 관한 선전이 실렸는데 그 속에 유골을 모시면 왕생극락에 자손발복 · 만병통치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타종교인이 그런 광고를 보고 우리 교계신문을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하니 신문사의 상업성이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천 · 경남 진해시 용원동〉

답 불교언론도 마땅치 않은 일을 했고 교계 한편에서도 그런 일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 밝히라고 가르치셨는데 고작 기복에 치우쳐서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시정되어야 옳겠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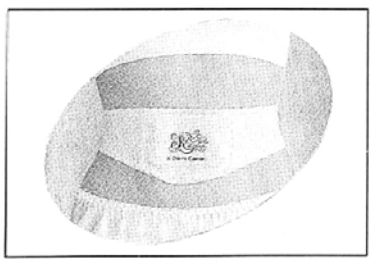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 주간 0명 • 야간 0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 · 포교사도 가능)
	4년	•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 주간 모집 완료 • 통신 0명		
중국어과	2년	• 주간 0명 • 야간0명		
불교미술과	2년	•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 주간 0명 •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 · 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지난해 화엄사 5층석탑 발견 종이뭉치

통일신라 다라니경 필사본

지난해 8월 전남 구례군 화엄사 西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종이뭉치는 통일신라시대때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발견당시 흙먼지로 덮여있던 종이뭉치는 보존처리 및 정밀조사결과 서기 754~755년쯤 닥나무 한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일부내용을 발췌해 필사하고 탑 모양의 도장을 파서 탑인(塔印)을 찍어 놓은 국보급 백지묵서경(白紙墨書經)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류유물의 종이는 두께가 서로 다른 3종류로 구성돼 있었으며, 탑인은 가장 두꺼운 종이에 찍혀있고 이들의 총길이는 모두 11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얇은 종이에 필사돼 있는 경문(經文)은 본문에 최승무구청정광명대근본다라니경(最勝無垢淸淨光明大根本陀羅尼經)이라고 씌여 있었으며, 30~75자가 불규칙하게 씌여있었고 필체도 달라 최소한 5명 이상이 함께 쓴 것으로 추정된다.

750년대 제작 길이 11m 추정

국보급 白紙墨書經

또 다라니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가운데 중요내용을 발췌해 최소한 25번 이상 반복해서 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다라니경 필사본은 불국사 석가탑 출토 국보 126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목판본)과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96호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필사본)에 이어 3번째로, 필사본으로는 2번째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지류유물이며, 종이재질이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과 동일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원본과 같은 종이에 붙여서 원형대로 펼치는 제2차 보존처리가 끝나는대로 문화재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손대면 부서질듯 정성없이는 불가능"

화엄사 다라니경 복원 성공 박지선씨



"흙을 털어내고 습기를 천천히 가하면서 한장한장씩 분리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정성없이는 불가능하죠."

구례 화엄사 5층석탑에서 출토된 '다라니경'을 4개월에 걸쳐 복원한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문화재 보존수리소에서 8년간 종이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국내 최고의 종이 보존처리 전문가로, 처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화엄사 석탑에서 나온 종이뭉치는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각각의 종이가 2장에서 심지어는 17장까지 달라붙어 있어 이를 떼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서로 분리되는대로 다시 종이의 덩어리를 만든 다음 계속해서 미세한 입자의 수분이나 바닥풀 종류의 접착제 등을 이용, 종이를 낱장으로 분리해 나가는 작업끝에 복원에 성공한 박씨는 지난 89년 불국사 다라니경 복원을 떠올리며 아직까지 국내 문화재보존기술이 뒤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당시 국내 기술로는 어려워 일본 전문가들을 동원해 우리문화재를 복원했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93년 일본에서 귀국해 각종 서적 및 회화, 일반 문화재를 복원 처리하는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

아미타 입상도·감로탱화 보물지정

문체부 묘법연화경·예명미타도량참법도 함께

한 소장가가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에 알려졌던 고려불화 '아미타여래입상도(阿彌陀如來立像圖)'와 '감로탱화'(사진)가 보물 제1238·1239호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본지 3월27일자 6면 참조〉

문체부는 또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 3~4를 보물 제1240호로, 직지사가 소장하고 있는 '예명미타도량참법' 권6~10을 보물 제1241호로 각각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아미타여래입상도'는 정교한 채색에 정면상을 취하고 있으며, 속살이 훤히 비치는 비단 표현 등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세계에서 두 점밖에 없는 귀중한 문화재다.

'감로탱화'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감로탱화에 이어 두번째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조선중기 감로탱화에 또다른 양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성보전시관 건립 눈앞에…

월정사등 8곳 문화재관리국 협의 최종안 확정

시공주체·건축규모등 결정놓고 이견조정 필요

◇8개 사찰 소장문화재 현황 및 전시관 건립규모

구분 / 사찰명	말사	소장문화재 현황					건립규모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지방지정	계	
용주사	70	1	13	1	17	32	105평
월정사	72	2	6	1	9	18	200평
마곡사	89	1	19		26	46	108평
수덕사	40	1	3		16	20	202평
금산사	90	2	24	1	15	42	300평
선운사	37		7	1	12	20	250평
해인사	95	3	5		11	19	600평
대흥사	47	2	6	2	8	18	300평

※건립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성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건립대상 사찰의 기본계획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시관 건립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말 해인사를 비롯한 8개 사찰에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 등 10억원의 성보전시관 국고보조금을 확정했으며, 조계종은 이를 각 사찰에 통보하는 한편 전시관 건립에 차질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8개 사찰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달중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쳐 가람배치에 따른 위치선정, 해당사찰의 전시유물 특성에 맞는 전통적 건축형태와 전시목록 등 성보전시관 건립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필요이 따라 문화재관리국측과 현지 합동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현재 각 사찰이 계획하고 있는 건립규모 및 위치는 용주사 1백5평(미정), 월정사 2백평(미정), 수덕사 2백2평(황하루 지하), 마곡사 1백8평(현 종무소 자리), 금산사 3백평(일주문 뒷편), 대흥사 3백평(미정), 선운사 2백50평(종무소 뒷편), 해인사 6백평(홍제암, 원당암 주차장) 등으로 이외에도 전시유물목록, 건물형태 등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상태다.

특히 성보전시관을 단순한 전시관의 용도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창달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흥사의 경우 전시관뿐만 아니라 교육관 등을 확보해 대외적 지역문화 홍보는 물론 초·중·고교생의 교육을 위한 수학여행지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시행주체 선정과 건립규모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사시행주체 선정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은 예산회계법을 들어 관급공사(지방자치단체에 시공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찰측은 부실공사 등의 가능성을 들어 시공에서 감리까지 사찰이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당해사찰은 관급공사 폐해사례와 현지 실정에 맞는 합리적 시공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찰직영시공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더욱이 최근 마곡사와 선운사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사찰측에 공사시공권을 부여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조계종과 각 사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공사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립규모의 경우도 당초 1백평내외를 주장했던 문화재관리국이 조계종측과의 몇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사찰에서 재정을 추가부담할 경우 그 이상 규모의 건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으나 부속건물 제한 등 8개 사찰이 계획하고 있는 성보전시관 외형에 걸맞는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사찰측과 문화재관리국이 공사시공권 등 부분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사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중생구제는 승가의 영원한 의무"

선우도량 미래승가상 수련결사서 제기

사회다양화 대비위해 전문성 배양해야

미래사회가 정보화 과학화 기능화 자본주의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수록 종교의 다양한 영역은 상실되지만 종교의 고유기능은 오히려 요구될 것이다. 또 승가는 시대·사조등 다각적인 변화에도 불교의 원이념을 바탕으로 중생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승가 고유기능에 대한 의견이 지난 3~4일 양일간 실상사에서 개최한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제기됐다.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불교, 승가의 근본정신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가의 역할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4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의 승가의 모습'을 이같이 제시하고 "승가는 다양화된 미래에 따른 불교관의 확립, 승가고유 역할 실현을 위한 전문성(방편) 배양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원리 제공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사회와 승가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결사에서는 또 승가의 복장, 취미활동, 소유물, 음식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승가의 위의와 처세에 대해 "승가의 위의는 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승가상이기 때문에 '청규'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교단적으로 대중과의 충분한 합의도출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사=도필선 기자

경북 군위에 불교유적 33기

대구박물관 확인… 도난·훼손대책 시급

경북 군위군에 불교유적 33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성구)는 군위군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인각사와 법주사 오층석탑 등 불교유적이 8개읍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종류의 불교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주사 탱화와 금동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의흥면 읍내리의 오층석탑과 우보면 나호리의 석불입상 등이 도난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교육관 98년 신축

부지 10만평으로 확장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지건길)은 최근 올해부터 전시, 수장, 교육 등 3개부문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98년까지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2천여평 규모의 사회교육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주박물관은 내년중 사회교육관 건립에 착공키로 하는 한편 총면적 2만평 크기의 박물관 면적을 5배인 10만평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백제마애불' 학술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와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제50회 미술사 강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순·고종 시대의 미술에 대한 강좌와 태안백제마애삼존불상에 대한 논문발표가 이어진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제26회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축하 범종불사 권선모연문

존경하는 한 민족 불자님!

1996년 여름 미국 아틀란타에서 제26회 세계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를 다짐하는 이 인류의 대축제를 우리 모두는 온몸으로 응원하고, 평화를 향한 크나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통해 빛나는 민족문화와 향상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여 국위를 높인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 이세계의 대제전을 무위로 지나가게 할 수 없어 이 대회에 우리의 고유문화를 담은 범종을 기증하여 다시한번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의 여러 민족앞에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 범종은 2,600관(9t) 크기로 조성하여 올림픽경기장 인근공원에 전통적 동양식 종각을 지어 매달고 대회가 열리고 끝날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범종을 울려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또한번 한국민의 올림픽대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새롭고 참되게 친선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불사는 주체적이고 문화적인 한미친선 사업으로써 그어떤 불사보다 참으로 필요한 은혜영험의 담보사업입니다.

은은한 범종의 소리에 자비화합의 가르치심과 인류의 평화공존염원이 함께 담겨 있어, 문화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민족들이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화합과 평화를 위해 따뜻하고 자비로운 가슴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지상극락이 모두 우리의 자비롭고 따뜻한 큰 가슴으로 성취되어 집니다.

분단된 국토와 분열된 민족을 통일해야 하는 우리 한민족 남북의 3천만 불자와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 문화와 문명이 다른 미국사회에 살고 있는 1백80만 한인동포들은 우리민족의 주체적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나아가 이를 서양문화에 접합하고 조화하여 재창조하려는 뜻깊은 이 불사에 기꺼이 동참하여 〈한인〉된 긍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화합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풍성한 성과를 올리게 하고, 문화민족인 〈한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이 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물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복밭을 일구어주시기 진심으로 권선하는 바입니다.

※이 불사에 동참, 후원자 이름은 이범종의 표면에 새겨 드립니다.

나무 본다 달마 스님, 아래를 참조하여 동참, 후원하여 주십시요.

1996년 4월 1일

아틀란타 올림픽 축하범종 불사추진위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

아틀란타 화덕사 한고려 문화 도서관건추위
대표 최소요 합장

▒증 명 법 주 : 월하 대종사
▒증 명 큰 스 님 : 금오, 전강, 동현, 덕암, 월산, 석주, 관응, 혜암, 회광, 법룡, 서옹, 원담, 월탄, 무공, 지형, 정현, 자용, 자공, 지광, 종열
▒지도유나큰스님 : 정영, 송담, 고산, 지관, 록원, 정일, 월주, 도문, 진제, 법홍, 철웅, 도원, 법전, 범행, 활안, 정관, 청화, 일타, 천운, 현고, 성수, 태웅, 혜정, 현해, 혜산, 월태, 오현, 정무, 지성, 종원, 현성, 현호, 동광, 정우, 진영, 무상, 법등, 성호

※ Phone No : (미국)770-473-0427 (한국) 0331-41-3466, 02-734-7478
※ 동참후원 : 제일은행-100-20-159075(최성묵)
미국 : Clayton National Bank 58710700-404855429, Sung Mook Choi
Morrow Atlanta GA30260 Sunthern Crescent Bank 0005007992 Sung Mook Choi

"불교 전문서점 제자리 찾았다"

서비스개선·고정독자층 확보로 경쟁력 유지

'책방 여시아문' 통신 판매·소식지발행 등 눈길
'관음손' 어린이불서로 차별화…지역 서점 활기

전반적인 출판불황속에서 '고급정보의 공간'으로서 불교전문서점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 독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매장공간도 넓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관리와 홍보,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

몇년 사이 대형매장과의 차별화, 전문화의 특성을 내걸고 변신을 시도하거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종교 아동 등 전문서점들은 변화된 시대의 서점문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각 분야의 깊이 있는 고정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꾸준한 신장세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등장한 본사 부설 책방 여시아문(대표 김광삼)이 불교전문서점으로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고, 3년전 자리를 옮긴 관음손(대표 강관음손)도 어린이 불서전문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법련사 직영 불일서점(대표 현호스님)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여는등 불교전문서점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에서도 대구의 삼영불교서점(대표 이승환), 부산의 불교서적전시관(대표 조재원), 전주의 상운각(대표 이해훈) 등 대형 불교서점이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철저한 회원관리와 통신판매 등 독자서비스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책방 여시아문은 60여평 규모에 7천여종의 불교관련 서적을 구비, 각종 서지정보와 출판예정 정보(소식지)의 전달에 집중하면서 판매용 도서 외에 희귀본 열람용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보련각등 오래된 불교서점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시작한 여시아문은 불교용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책 중심' 불교전문서점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8층의 자체 빌딩에 출판사와 인쇄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30여년 전통의 삼영불교서점은 120여평의 매장에 불서와 불교용품을 함께 전시 판매하며 대구지역 종합불교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8년 전통의 부산 불교서적전시관도 3층짜리 자체빌딩에 70평 규모의 불교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1층 불교용품 매점과 3층 불상·탱화 전시관을 함께 갖춰 부산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대전의 보문불교서점과 진주의 제일불교서점 등도 30여년 전통의 이름난 불교서점이다.

전국 90여개에 달하는 불교서점은 대부분 불서와 불교용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서점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물품 비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삼영불교서점 이승환회장은 "대형매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독자의 욕구에 성실하게 응답한다면 더많은 예비불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대표적인 전국의 불교서점들

소재지	서 점 명	전 화	소재지	서 점 명	전 화
서 울	책방여시아문	737-0695	춘 천	불교문화원	53-3866
	불일서점	733-5388	마 산	마산불교사	42-2485
	보련각	733-0333	진 주	제일불교서림	41-5832
	운주사	720-9373	경 주	불교서점	749-1580
	관음손	720-1147	전 주	상운각	74-6639
부 산	불교서적전시관	632-7393	제 주	불교서점	57-3321
	고려불교예술원	807-6842	공 주	백제불교서점	55-5621
대 구	삼영불교서점	421-3980	제 천	보문서점	847-2819
인 천	인천불교서점	773-9086	상 주	제일서점	535-2377
광 주	원각사불일서점	232-7542	충 주	구현불교사	848-8411
대 전	보문불교서점	253-6446			

성우스님 시집 '선시' 펴내



◇성우스님

〈연꽃〉〈마음비워 좋은 날〉〈연꽃 한 송이〉 등 시집을 낸 바 있는 성우스님(파계사 주지)이 1백1편의 시로 구성된 〈선시〉(토방 刊)를 펴냈다.

〈선시〉는 성우스님이 호주 타스마니아라는 섬에서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이 없는 집, 흔히 무문관(無門關)이라 불리는 곳에서 참선에 정진하고 있을 때 쏟아져 나온 시어들을 모은 것이다. 시집에는 '석성우 시인의 선시세계'란 이상범시인의 시평이 실려 성우스님의 시세계를 엿보게 한다.

틱낫한 스님 '사랑을 배우는' 美서 출간

무상·무아·열반을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

이념의 대립과 빈부의 갈등을 내면적인 각성과 사랑의 이해로 평화를 실현하고 있는 베트남 틱낫한 선사의 96년 신간 〈사랑을 배우는(Cultivat-ing the Mind of Love)〉이 버클리의 파라랙스사에서 출간됐다.

책에서 틱낫한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세가지 무상(imp-ermanence) 무아(non-self) 열반(nirvana)에 주의를 기울인다. 세가지 가르침을 현대인들에 맞게 재해석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권유, 현대인들의 상실감을 불교적 명상으로써 치유하려고 하고 있다. 만물은 무상하고 고통이 있다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지 모르나 무상함은 현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하는 지혜로움이라며 "무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며 단지 자유로운 시각과 실체를 꿰뚫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써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에 모든 것과 연결, 공존하고 있으며 아무런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깨달음으로 무아의 개념속에서 명상에 거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열반을 고통과 관념의 소멸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욕심 증오 무명의 세가지 고통을 소멸시켜야만 해방될 수 있다. 현상이나 관념에 얽매이면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틱낫한 선사의 수행 비결이다. 〈남〉

명사추천 불서 100선

화엄일승법계도記

의상은 지엄의 문하에 있을 때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귀국후 황복사에서 표훈·진정(表訓·眞定)등의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이 때 의상이 강론한 내용을 제두법사가 받아 기술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記〉이다. 이 책은 7언시의 30구로 된 총 210자를 4각형으로 배열한 법계도와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것인데, 화엄경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십지론(十地論)을 설명하여 원교(圓敎)의 종요(宗要)를 나타내고 있다. 곧 그 속에는 "일즉일체(一卽一切)요 다즉일(多卽一)이며, 일중일체(一中一切)요 다중일(多中一)이다"라는 원융(圓融)사상이 담겨있다.

화엄사상의 근본은 연기(緣起)에 있다. 우주의 본체요 진여(眞如)인 '하나'가 인연에 따라 일으키어 둘이 되고, 둘은 다시 넷이 되어 결국은 삼라만상을 구성하게 된다.

의상은 지엄의 문하에 있을 때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귀국후 황복사에서 표훈·진정(表訓·眞定)등의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이 때 의상이 강론한 내용을 제두법사가 받아 기술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記〉이다. 이 책은 7언시의 30구로 된 총 210자를 4각형으로 배열한 법계도와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것인데, 화엄경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십지론(十地論)을 설명하여 원교(圓敎)의 종요(宗要)를 나타내고 있다. 곧 그 속에는 "일즉일체(一卽一切)요 다즉일(多卽一)이며, 일중일체(一中一切)요 다중일(多中一)이다"라는 원융(圓融)사상이 담겨있다.

화엄사상의 근본은 연기(緣起)에 있다. 우주의 본체요 진여(眞如)인 '하나'가 인연에 따라 일으키어 둘이 되고, 둘은 다시 넷이 되어 결국은 삼라만상을 구성하게 된다. 반면 삼라만상은 근본인 '하나'에서부터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假相)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내는 원칙적인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기(性起)라 부른다. 화엄사상은 연기와 성기에 의해 우주의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일면 부서지는 속에, 무진(無盡)한 사바세계의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화엄학자에 따라 '하나'에 의해 만들어진 제법상(諸法相)을 실체로 보아 그 의미를 부여하는 연기론적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면, 그것을 언제 없어져 버릴 지도 모르는 허상으로 보아 근본인 '하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성기론적 입장을 뚜렷이 하기도 한다. 〈화엄일승법계도〉에서는 "하나의 조그만 티끌 속에 시방의 광대한 세계를 포함한다"고 하여 성기론적 입장을 주장하였다. 반면 의상과 동학으로 중국의 화엄사상을 체계화한 법장(法藏)은 연기론적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화엄사상에서 현상계를 이해하는 입장에는 의상이나 법장과 같은 대조적인 견해가 있는데, 후세의 어느 화엄사상가도 이 두 견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화엄교리를 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화엄사상을 이해하



김 두 진
〈국민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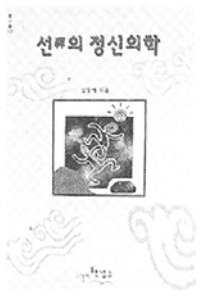
만물의 조화·균형의미 밝혀
의상 화엄사상 이해 길잡이

고 구조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상은 문하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징표로서 〈화엄일승법계도〉를 찍어 전했다고 하며, 특별히 실천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그는 계율적인 수행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기론을 중심으로 한 원융사상은 조화와 균형, 포용과 질서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그 속에는 불타의 위대한 가르침이 자리했는가 하면,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려는 세련된 지성은 물론, 정토를 희구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함께 스며 있다. 〈화엄일승법계도기〉를 통해 저마다의 목소리로 혼돈된 삶이 이어지는 오늘의 사회를 바로 이끄는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禪의 정신의학 — 김종해 지음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장을 역임한 고 김종해박사의 논문과 기타 유고(遺稿)를 모은 〈禪의 정신의학〉이 책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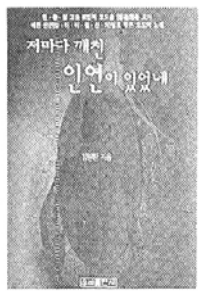
김박사는 생전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치료법인 영상요법(影像療法)을 발표해 세계정신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상요법은 신라의 불상 사진을 특별한 방법으로 디자인해 전시함으로써, 그 각각 혹은 모든 영상의 시각적 암시 효과와 함께 환자의 자각을 기대하는 치료법. 원효스님의 사상·실천과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거두인 에릭슨(E. H. Erikson)을 함께 공부하던 중 착안했던 이 연구의 원 제목은 '영상조성(影像造成) 원영현전(原影現前)' 및 영상요법을 위한 연구'다. 유고정리와 교정은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가 맡았다.

〈한강수 6천5백원〉

영상요법통한 독특한 치료법 소개

화 제 의 책

저마다 깨친 인연이… — 김원환 지음



조계종 수선회 부회장인 김원환씨가 한국 중국 일본의 90인 오도송(悟道頌)을 모아 깨친 인연(眼 耳 鼻 舌 身 意)별로 엮은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를 펴냈다.

오도송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로병사를 벗어버린 대자유인들의 깨달음의 노래다.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 등 90인의 오도송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뜻을 알고, 몸을 던져서 깨친 인연별로 소개해 그들이 수행한 방법과 깨달은 인연을 본받도록 한다.

이 책은 깨달음에 남녀노소가 없고 승속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곧 도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저자는 "우리도 저들 도인들처럼 맑고 밝은 내 본심을 깨쳐 나의 목소리로 나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한다. 〈우리출판사 6천원〉

한중일 고승 등 90명 오도송 총집합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기저·편자	출 판 사
1	달을 돋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능엄경 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 비	민 족 사
9	업보	혜 범	밀 알
10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부처는 없다(불은스님 엮음)=처음 보리의 마음을 내어 불교에 입문한 이들에게 주는 원효, 보조, 야운스님의 〈발심수행장〉〈계초심학인문〉〈자경문〉등 세 분 옛 스님의 간곡한 말씀을 엮었다. 먼저 원문의 해석을 몇 줄 싣고 경전상 합치되는 경구를 뽑아 밑에 실었으며, 불가에 전해지는 예화를 원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뽑아 실었다.

〈사경공덕원 4천원〉

▲우주와 생명(스티븐 와인버그外 저)=우주의 생명에서부터 인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20세기 과학의 각 쟁점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석학 14인이 집필한 10편의 에세이 모음. 지령 150년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중과학 월간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94년 특집호를 옮겼다.

〈김영사 1만5천원〉

▲한문이란 무엇인가(김도련·유영희 공저)=김도련교수(국민대 중문과)와 유영희씨(고려대 강사)가 오랜 한문강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문입문서. 한문을 문예적 예술미를 갖춘 문장으로 보고, 한문의 예술성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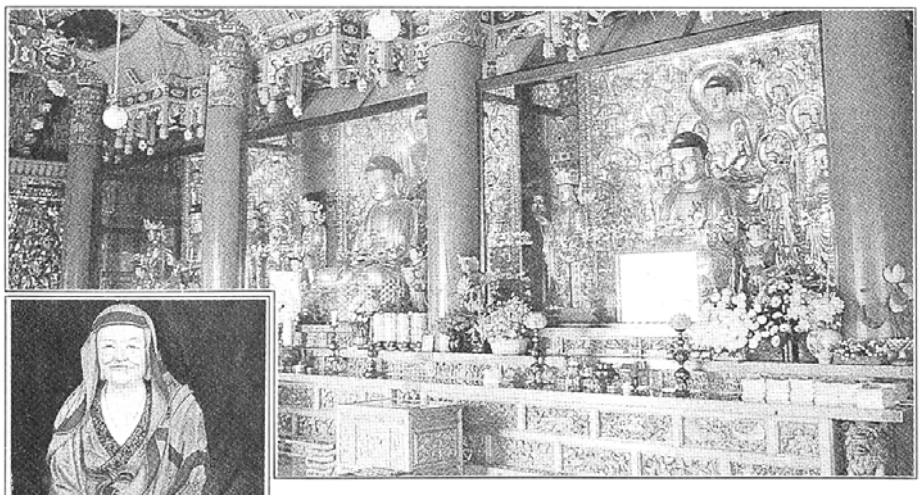
〈전통문화연구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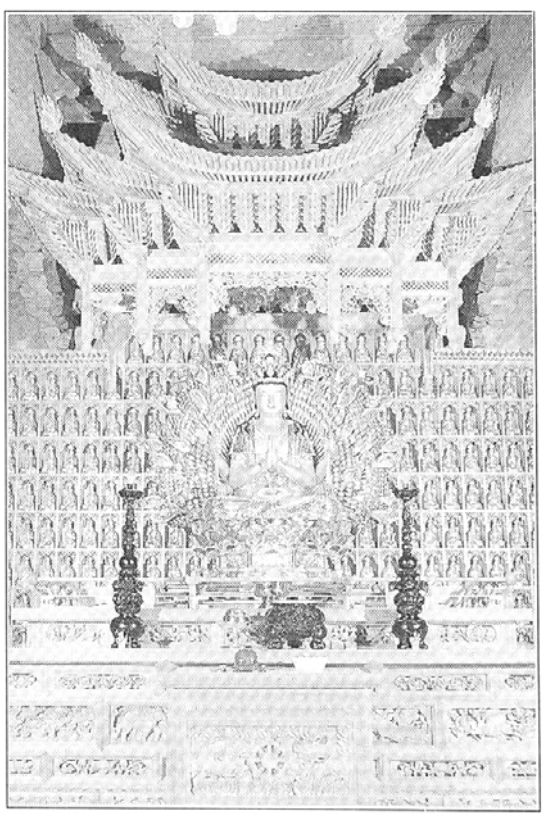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박영규 저)=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치세를 정사로 요약해 조선왕조의 전체상을 재미있고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조선사와 왕들에 대한 편협한 지식 대신 정열과 철학을 책에 담았다. 〈들녘 9천원〉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온겨레 시조짓기추진회 정 완 영 회장

"시조는 사고력 깊게하고 사물보는 눈 틔워줍니다"

시조작법 교과서 수록 건의…불교시조문학회 구상

"한글창제와 더불어 시발된 시조는 우리겨레 고유의 정형시로서 민족과 함께 해온 민중의 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먹고살기 바쁜 탓도 있었지만 서구지향적으로 외래문물 받아들이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이니 정신문화계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조짓기는 사고력을 깊게 하고 사물보는 눈을 틔워줍니다. 거칠고 메마른 국민의 정서 순화와 함양을 위해 전국민 시조짓기의 생활화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 고유의 시가인 시조를 부흥시켜 전국민이 시조를 짓고 애송하는 운동을 펼치자는 취지의 '온겨레 시조짓기 추진회'가 정식 출범했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원로 시조시인 정완영씨(78)는 "시조는 45자 안팎의,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상징과 압축이 뛰어난 정형시로 누구든지 쉽게 배울수 있다"며 이를 위해 "먼저 초·중·고교 교과서에 '시조작법'을 게재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위해 각급 학교(고등학교 대학교)진학시험에 시조짓기가 출제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다. 추진회는 또한 각 기업체 및 공공단체 연수시 시조짓기강좌를 배정토록 해 시조짓기 운동을 사회적으로 펼쳐나가며 올가을 전국 규모의 겨레시 백일장도 기획하고 있다.

'온겨레 시조짓기 추진회'에는 운영위원장 이상범시인, 발기인에 오현 성우 이두 정휴 스님, 김원각, 경철씨 등 불교계 시조시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오현 정휴 청화스님 등 많은 스님들을 문단에 데뷔시킨바 있는 정완영회장은 "시조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시조부흥과 함께 전 불교문인들이 동참하는 '불교시조문학회' 발족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청주인쇄문화축제

선조들 인쇄문화 재현

28일까지 흥덕사지 박물관서 열려

무형문화재 오국진씨 '직지심체요절' 제작과정 시연
불교인쇄문화 우수성 재확인…목판다라니경등 전시



◇지난 1일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오국진씨(사진 오른쪽)가 청주 고인쇄박물관 광장에서 금속활자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금속활자장 오국진씨가 소형 용해로와 풀무를 설치, 놋쇠 등의 금속을 녹여 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땀을 흘리며 보여준다. 이어 완성된 금속활자본에 먹을 칠하고 한지를 대어 찍어낸다. 인출이 끝나면 제본과정을 보여준다. 주위에 둘러선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선조들이 했던 인쇄과정을 바라보며 직접 금속활자본에 글씨를 찍어보기도 한다.

지난 1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을 찍어낸 인쇄문화의 발상지 청주 흥덕사(興德寺)터에서 고대인쇄물의 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쇄문화축제 첫날 현장. 충북 청주시는 청주가 '세계 인쇄문화의 메카'임을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한달간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경내에 위치한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제2회 인쇄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인쇄박물관과 쌍벽을 이루는 동양 최초의 전문 인쇄박물관인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김광식) 광장에는 이 기간에 지난 2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된 오국진씨가 〈직지심체요절〉의 인쇄과정을 직접 소개하고 시민들이 찍어 보는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또 괴산 신풍전통한지 특산단지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기구를 광장에 설치, 전통한지의 제작과정도 시연한다.

우리나라 활자매체의 변천을 대변하는 이 두 과정을 본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직지심체요절〉등 37점의 금속인쇄본,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다라니경〉(751) 영인본, 보물 제3백98호인 〈월인천강지곡〉등 우리 인쇄문화의 발달과정과 우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밖에 '독립신문' 발간 1백주년을 맞아 기획한 신문역사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청주가 이처럼 명실상부한 '인쇄문화의 메카'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된 것은 흥덕사지가 발굴된 지난 85년부터. 물관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세계인쇄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 8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2백평 규모의 청주종합인쇄박물관(가칭)을 현재의 고인쇄박물관 옆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비지원금 30억원을 들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기본 설계를 마치는대로 공사에 착공해 오는 98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광식 고인쇄박물관장은 "백운(白雲)화상이 선의 요체를 설명한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대통령의 영구임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인쇄문화의 주체인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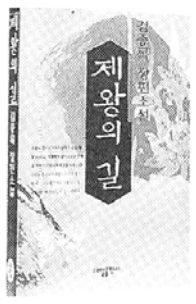
청주=김재경 기자

도선국사 삶·수행 소설로

김종록씨 '제왕의 길' 펴내



◇김종록씨



'고려사' '청학집' 등 사료 토대
스님의 '전국토 만다라화' 원력그려

신라말 대 사상가이며 당대의 선승이었으면서도 단지 풍수지리의 대가로만 알려져있는 도선스님(827~898)의 삶과 그 발자취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칼라빈카〉로 불교문학상을 받았고 총 100만권 이상이 나간 소설 〈풍수〉의 작가 김종록씨가 최근 도선스님의 역정을 조망한 장편소설 〈제왕의 길〉(태일출판사 刊)을 펴냈다.

김종록씨는 이 소설에서 혼탄기에 빠져있던 신라말, 이 땅을 구제하려는 대 원력으로 선교에 달통했고 제왕학의 달인으로 큰인물을 키워내려 한 도선스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님이 화순 천불천탑 등 전국 3천8백 군데를 사탑으로 비보하려고 한 이유는 원시경전에도 나오는 만다라 택지법으로 길지와 흉지를 판별하고 더 나아가 흉지를 길지로 바꾸어 온 국토를 만다라化하기 위한 대원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환경(땅)을 변화시켜 놓고 그에 따른 제왕이 나타나도록 힘써 장차 후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이념으로 한 국가 고려를 창건하는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 스님이 풍수라는 방편을 쓴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백성들이 사는 이 터를 거대한 법당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작가 김씨는 "고대 법력높은 수행자들은 누구나 수행하기 좋은 길지를 알고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절들이 명당터에 자리잡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도선스님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미하고 교계에서조차 냉대받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 소설을 쓰게 됐다는 김씨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고려사' '청학집' 등 사료를 샅샅이 뒤졌고, 순천 도선암 등 도선스님과 관련된 곳은 어디든 찾아가 자료를 모으고 향토사학자들을 만났다. 도선스님을 기리는 변변한 비 하나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김종록씨는 "도선스님이 살던 시대 얘기는 바로 우리시대의 얘기"라며 "외세에 시달리는 요즘 도선스님은 다시 조명해야 할 선지자"라고 말한다. 〈숙〉

불심시심 〈49〉

임의 이별

橋頭柳絲絲 (교두류사사)	다리 머리 버들은 실, 실
撓撓征人衣 (뇨뇨정인의)	가는 님 손에서 한들 한들
來人去人此爲別 (내인거인차위별)	가는 이 오는 이 여기서 이별
柳又堪經幾人折 (류우감경기인절)	이 버들 또 몇 사람에게 꺾였나
願君早還須趁期 (원군조환수진기)	원컨대 임이여 빨리 오실 기약은
莫待此柳枯朽時 (막대차류고후시)	이 버들 마르기를 기다리지 마소

이 시는 백곡선사께서 고이별(古離別)이라 하여 지은 시이다. 스님의 시라고 보기 어려울만큼 남녀의 이별을 애틋하게 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승속을 뛰어넘는 격의의 자세가 아닌가. 정다운 이와의 이별에 애틋한 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 사람의 당연한 정리가 아닌가. 이것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출출세간의 환원이 된 시다. 이 시는 버들을 이용하여 가는 이를 보내는 여인의 심정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버들은 강가에 있음이 제격이다. 흐르는 물의 유유함이나 버들가지의 하늘거림이 바로 같은 사물의 속성으로서 물 흐르듯 지나가는 인생으로 대비되기에 안성마춤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에는 이 버들을 사이에 두고 애틋한 마음을 교환하게 되었다. 첫구에 있어서 버들가지를 실로 표현한 것이 일상의 수법이기는 하지만 실 실로 표현되는 글자의 반복이 주는 의미는 시각적 효과까지도 아우른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구에 있어서 바로 윗구의 반복적 수사를 그대로 받아 하늘하늘함의 두 자로 반복함이 바로 이 시의 수사적 묘이다. 가지에 머물렀을 때의 실이 이제는 가는 이의 손에 들려 한들거림의 동작으로 변하였다. 두 사람의 흔들리는 정을 말없이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은근한 정에 매혹되게 한다 할 것이다.

이별의 장소로 강가의 나루 머리나 다리 위로 선택되는 것은 강물이라는 가로지름이 이쪽 저쪽이라는 분계선을 상징적으로 그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강가의 버들은 이별하는 이의 더할나위 없는 매개물이다. 그러하니 이 버들이 꺾여지는 가지는 해마다 더해간다. 셋째 넷째 구에서 이 안타까움을 서술하였다. 이별하는 이로서는 하나의 정표가 되거나 안타까움의 상징이 되는 등 나름의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버들 자체로서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시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버들의 괴로움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별이란 항시 만남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는 항시 뒷 기약을 묻게 마련이다.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님에게 원하는 일은 언제 다시 올 것인가 하는 기약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되도록 짧아야 한다. 이 시는 이 점을 아주 재미있게 마무리 하였다. 되도록 빨리 오되 손에 쥐어져 있는 버들가지가 마르기도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가는 걸음을 그저 되돌리라는 것보다도 더 촉박한 표현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소식

불교소년소녀무용단 설립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이 소년소녀무용단을 설립한다. 초등교 3~중학교 3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무용단은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지도를 받으며 정기발표회 해외순회공연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모집마감 4월 20일 문의 (02)725-7527

용천사, 선·호랑이화 특별전

신라 의상스님이 창건하신 화엄십찰 중의 하나인 용천사(청도군 각북면·주지 석종)는 가람중창불사의 원력으로 오는 15일까지 대구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禪畵 및 호랑이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공거사의 선화 및 수양거사와 범선스님의 호랑이그림 그리고 글씨 등 7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0542)72-7204

조정현씨 '상감질그릇전'

법련사 불일미술관(관장 신영훈)은 오는 16일까지 조정현교수(이화여대)의 '상감 질그릇展'을 열고있다. 전통질그릇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해온 조정현교수는 김치독 장독 등 옹기에 상감기법으로 갖가지 그림을 그려넣은 질그릇 6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홍학의 아침산책' '가야금 줄에 걸린 선율' '우주를 깊게 담았더니' 등의 제목이 말해주듯 자연이나 일상생활, 음악 선율 등을 형상화한 이번 작품전은 조교수의 8번째 개인전이다.

불교문화센터 민화 도반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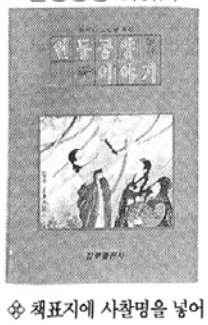
불교문화센터 민화반(지도강사 이영자)에서 민화를 배운 불자들이 오는 11~17일 관훈동 '백악예원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보여주는 제3회 민화 도반회전을 개최한다. (02)734-4205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운거사의 등공양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300원 크기 / 신국판 × 64페이지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 라 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 금 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불·교·계·유·일·의·종·합·학·술·정·보·잡·지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계간 《多寶》는 창간호(1992. 3)부터 통권 16호(1995. 12)까지 4년간 발행된 잡지를 4권으로 묶은 합본호를 보급합니다.

●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4호간) 20,000원
은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재)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재)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재)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재) 대한불교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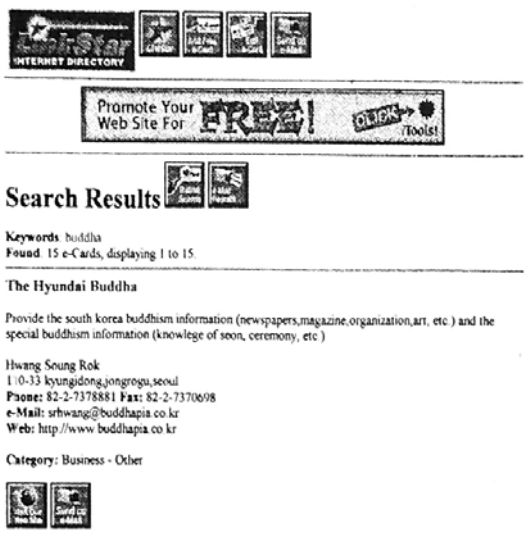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읽으시려면
계간《多寶》를 보십시오

계간 多寶는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계간 多寶는 시론 논단 기획특집을 비롯하여
타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자료 및 주목받는
발굴자료 등 기획물이 풍부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자 여러분 곁에는
늘 多寶 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모시듯 선생님을 소중한 독자로 모시겠습니다.

• 발행 / 보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 〈多寶〉
(전화) 02-719-1855 (FAX) 02-719-5052

부다피아 ①



부다피아 '禪정보' 1천점 만점 평가

美 정보검색업체 '링크스타' 분석결과

「불교일반」 美 불교동호인에 이어 2위

미국의 거대 정보검색업체인 링크스타는 지난달 시범가동에 돌입한 본사의 부다피아를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관련 웹사이트 중에서 우수한 정보제공업체로 선정했다.

부다피아가 링크스타의 평가를 통해 수위를 차지한 항목은 선(禪 seon)·불교일반(buddhism)·부처님(buddha) 등이다. 이 항목 중에서 부다피아는 '선'에서 링크스타가 줄 수 있는 최고점수인 1천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 그리고 4백90점을 얻은 '불교일반'에서는 1천점으로 평가된 '불교 동호인(Friend of Buddhim,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부다피아가 지난 3월 8일 인터넷 상에 공식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공신력 있는 정보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링크스타로부터 얻은 최초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에는 정보검색프로그램인 서치엔진(Search Engine)을 제공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웹사이트와 개인 혹은 단체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새롭게 등장한 홈페이지 소식을 이런 두 가지 웹사이트에 각각 알려주는 웹사이트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웹사이트가 있다.

이번에 부다피아를 평가한 링크스타는 이들 웹사이트 중에서 정보검색 웹사이트.

특히 링크스타는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각각 상대평가해 일정한 점수를 주고 순위를 매기는 유일한 웹사이트이다. 또한 링크스타가 사용하는 서치엔진은 '링크스타 글로벌 디렉토리(LinkStar global directory)'라는 광범위한 인덱스 자료를 통해 키워드 뿐만 아니라 이름·국가·회사명 등 11개 항목에 걸쳐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링크스타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에서는 정보검색프로그램인 서치엔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야후를 비롯 웹크라울러·인포시크 등 15개 안팎의 웹사이트가 있다.

오증욱 기자

'정보의 바다' 넘나드는 부처님 소식

현대불교 전략정보팀 인터넷 웹사이트 '부다피아'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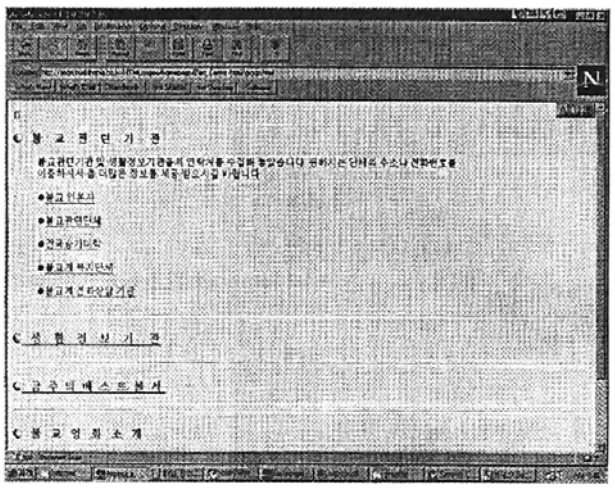
지구촌 네티즌에 서비스개시
3월 '썹미트 잇'에 등록 마쳐

불교계 최초로 멀티미디어 정보선터 '부다피아'를 자체 개발한 현대불교신문사(이하 본사)가 드디어 세계 최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 상에 한국불교 관련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본사 전략정보기술팀(팀장 황성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3월8일 공식적인 웹사이트 등록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 이에따라 부다피아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포교영역을 세계로 확대한 쾌거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자편지·음성·링크서비스 등의 기능이 '실시간(實時間·Real Time)'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부다피아가 제공하는 정보·기능 등을 국내의 사부대중이 적절히 이용할 때, 국제전자편지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고 국제적인 화상회의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장소·시간에 구애없이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불교의 문화·학술·뉴스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전세계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부다피아가 제공한



◇부다피아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초기화면들.







"음성·링크서비스등 실시간 제공…화상회의도 가능"

부다피아 시스템을 개발한 전략정보기술팀에 따르면 현재 부다피아에서 제공되는 정보·기능 등을 사용할 때, '포교의 세계화'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

부다피아에는 정보센터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찰·인물·불구(佛具)·전통구조물 등의 다양한 정보와 이를 검색하는 검색프로그램(서치엔진, Search Engine)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부다피아에서는 인터넷 최첨검색프로그램를 사용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 출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각지의 불교정보 역시 국내 사부대중이 부다피아의 기능을 사용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부다피아는 자체 정보·기능을 통해 국내와 해외 사부대중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써 '포교의 세계화'에 참여한다.

한편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은 인터넷 상에 한국불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부다피아와 같은 웹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인터넷 상에 등록했다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가 '야후'나 '링크스타'와 같은 정보검색 웹사이트에서 검색프로그램을 사용해 찾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

부다피아는 지난 3월8일 '썹미트 잇' 웹사이트에서 등록절차를 마쳤다. 썹미트 잇은 인터넷에서는 유일하게 웹사이트 등록절차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한 '야후' '링크스타'와 같은 16개 정보검색 웹사이트가 사용하는 '정보 인텍스 자료'를 관리하는 웹사이트.

따라서 썹미트 잇에 등록한 부다피아는 이제 인터넷의 검색프로그램을 사용, 'buddhism' 'zen' 'seon' 'buddha' 등과 같은 일정한 키워드를 통해 부다피아의 소개와 부다피아의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이를통해 지금까지 부다피아를 이용한 네티즌은 대략 1천5백명에 이르고 있다.

오증욱 기자

넷스케이프 'OPEN' 선택 후 주소 입력

부다피아 이용안내

부다피아는 인터넷의 여러 서비스 중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웹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윈속(Window Socket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인터넷 통신프로램과 웹 검색용 프로그램인 '넷스케이프' '모자익' 등의 윈도우용 소프트웨어 두 종류가 필요하다.

부다피아에 접속하려면 우선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상용통신망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웹은 일반적인 통신 프로그램 〈이야기〉 등으로는 접속되지 않고 '트럼펫 윈속' '트로이 윈속' '데이콤 윈속' 등의 윈속 프로그램을 써야한다는 것.

상용통신망에 접속을 한 뒤에는 인터넷 망에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 선택하고 다시 웹 검색용 프로그램인 '넷스케이프' '모자익' 등을 실행시키면 된다.

그리고 부다피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검색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OPEN'을 선택한다.

그리고 부다피아의 웹사이트 주소 'http://www.buddhapia.co.kr' 나 '203.239.34.1'을 입력하면 부다피아를 이용할 수 있다.

〈욱〉

부다피아가 제공하는 정보들

4월부터 부다피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7가지의 주제별 홈페이지로 나눠진다.

부다피아 초기화면에서 읽고자 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주제별 초기화면이 화면에 나타나고 다시 작은 메뉴의 항목이 나온다.

▲현대불교 신문 읽기 : 신문 읽기와 구독신청 여론수렴의 메뉴로 나눠져 있다. 신문 읽기에서는 매주 발행되는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기사는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설, 각종 칼럼, 시사기사, 기획기사, 연재물들을 볼 수 있다. 구독신청 항목에서는 등재된 구독신청서에 희망자의 주소 희망 구독기간등을 작성하면 된다. 또 여론수렴 코너에서는 신문기사나 시사문제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보내 신문 제작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종단 안내 :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등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30여 종단의 소속 사찰과 활동조직 산하기관 유관단체등에 대한 정보와 각 종단 소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는 현재 조계종 조직현황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안내 교계인물 소개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교구본사 항목에서는 각 본사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소장문화재 안내 관련 인물안내 등을 찾아볼수 있으며 교계 인물 소개 항목에서는 현재 교계에서 활동중인 스님들의 최근 사진과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불교출판 : 여시아문 불교도서 목록 서비스, 전자출판 서적, 도서대출 서비스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불교도서목록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전시하고 있는 불교도서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신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자출판 서적 항목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출판의 현황을 볼 수있다.

▲생활불교 정보 : 국내의 각종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일반불교정보와 생활 정보서비스로 메뉴가 나눠져 있다. 교계 단체들의 행사와 문화 학술등 각종 행사들을 안내하며 불교단체들의 전화번호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선(禪, SEON)관련 정보 : 선 수행에 대한 안내와 선관련 법회등을 찾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다. 링크스타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은 이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활동상(법회안내 탑묘공원운영등)과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어 등이 제공되고 있다.

▲불교 인터넷네트워크 : 1백여개에 이르는 세계 불교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1만개 이상의 불교관련 개인 홈페이지를 선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 : 국내 불교이외의 각종 네트워크와 연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다.

현대불교신문·禪·온라인 불교출판 등 7개 주제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제주지사	• 전화	064-55-9800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정법통신
(96 - 2)
불교 4부대중의 해제를 축하하며
(1) 3,5,6,7공, 4대 독재 아부권승 총무원장을 축출한 개혁종단 출범 1년여의 업적을 찬양한다.
(2) 지금까지의 제도 개혁만으로 지만하고 태만하면 혹닢엔 올곧고 원만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니 시위거사 전후의 해종불자들도 원만하면 포용, 개혁발전에 동참케하라.
(3)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편향은 민족과 세계평화는 물론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이니 사회 참회하는 것이 좋다. 큰 스님들의 무겁고 바른 언행과 출입은 참 아름답다. 대인 군자들은 칼국수에 실성하지 않는다.
(4)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예수교 성경에 손을 얹고 미합중국에만 충성한다는 선서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는 3·10 시대불교 신문의 기사는 근거없는 소리다. 시민권 취득시에도 성경은 등장하지 않는다. 단, 이력서, 호적위조,금권당선이 사실이라면 참회가 필요
(5) 4·11 총선은 선도적으로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의 개혁정신적 정치단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된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하자. 총선후엔 수구적 보수의 연합과 정계개편이 필요운운한 것은 역사의 바로함과 발전에 반역하는 망발이다.
(6) 왜인들의 한국모욕발언은 그 모두가 민족분단과 3김이 조장한 지역할거 및 대결주의의 악습이 부른 자업자득들의 것이다. 민추협과 재야진보세력과 민주노총은 대동연대하여 조국의 혼돈과 위기를 구하라.
(7) 대만 이동휘씨의 대만 독립망상은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원하는 미·일제국의 주구가 되는 것으로서 우주의 엄벌을 받을 것이다. 나무 부처님 달마님 큰스님!
96. 4. 1
조계종국제포교지도법사
아트란타 올림픽 축하범종불사위
한고려문화도서관 건추위 대표
영선최소요 합장
서울 734-7478, 738-7735
ATL 770-473-0427
후원계좌 : 제일은행 100-20-159075 최성묵
정의와 자유의 광명이신 부처님은 그대와 동지의 정직하고 계끗한 무궁 노력의 승리를 간망한다. 정법불자여 민주통일을 위하여 일치단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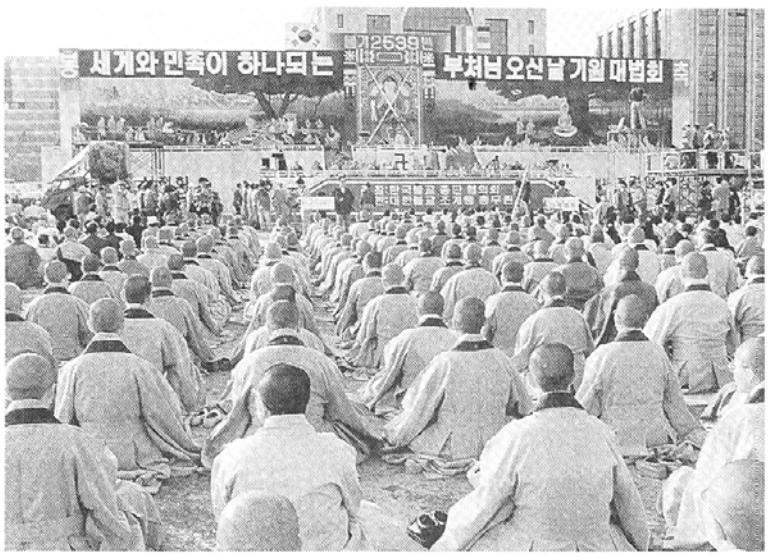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법,도량석,쇳송,상단예불, 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 요잡바라,천수바라,도량게,다게 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원서접수 : 1996년3월18일~4월23일
■개강일시 : 1996년4월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는 불자님들께 그동안 이자임 결혼 연구원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드리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96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회비 20만원의 등록회비를 무료로 실시하고 사무실 전화요금과 상담비 명목으로 적은 비용으로 불자님 가정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좋은 만남 될때까지 책임감있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성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선하여 계속 추진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 :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재혼남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학력 : (남) - 전문대졸 · 대종이상(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 남녀 (23세~ 70세 까지)
■ 초재혼 : 여(국졸,중졸만 -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특별상담)
· 여 : 학력 제한 없음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辛,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부다피아 ②

초파일 봉축행사 인터넷으로 함께 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관련 봉축행사가 인터넷에 부다피아를 통해 세계에 안내된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봉축행사 안내 인터넷 서비스는 부다피아의 기술력과 봉축기획단·불교문화원의 정보·자료제공으로 구축된다. 사진은 지난해 여의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장면.

지구촌 5천만 가입자 법요식·연등축제 감상

봉축기획단·불교문화원 핫라인 연결

지역·사찰행사도 총망라 포교세계화 신기원 이룰 듯

한국불교사 최초로 '96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본사의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본사의 전략정보기술팀이 봉축기획단과 한국불교문화원의 협조체제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96 봉축행사 홈페이지 '불기2540 봉축행사 안내' 구축 계획은 봉축행사와 관련해 △일정표 △법요식 △문화행사 △연등축제 △봉축기획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봉축행사의 지리적인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자비의 손길 △지역 봉축행사 △사찰단위 행사도 함께 인터넷 상에 제공, 세계인이 함께하는 봉축행사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기2540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 구축에 여념없는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은 "봉축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범세계적인 불교축제입니다. 또한 사부대중은 이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신을 오래도록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라며 봉축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나 현대 언론의 특성상 단발성 기사로만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동기를 찾았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될 '96 봉축행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중내내 봉축행사 관련 정보를 보관·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96년도 이전 봉축행사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띄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불기2540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는 부다피아 자체의 기능에 힘입어 몇가지 특징을 갖게된다.

첫째, 예년보다 많은 대중이 봉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과거 봉축행사는 서울을 비롯 경기지역에 한정된 지협적인 행사로 비쳐져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통신망을 적극 활용하는 부다피아에 힘입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봉축행사의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사부대중에 제공한다는 것. '96 봉축행사 홈페이지는 실시간(Real Time) 정보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봉축행사 보도를 도맡았던 신문과 방송매체와 비교해 현장감있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이 갖는 지면 한계와 방송매체가 갖는 시간의 한계는 봉축행사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한계일 수 없다. 따라서 봉축행사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한국불교의 봉축행사를 지구촌 축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부다피아에 의해 제공될 '불기2540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는 당연히 인터넷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통신망으로 지구촌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매체이다. 따라서 지구촌 어느곳에서든지 부다피아 웹싸이트를 방문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불교의 봉축행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개통을 축하합니다

정보화 중심에 선 '부다피아'에 박수

설 정 〈조계종 종회의장〉

'부다피아'란 이름만으로도 불국토 건설의 간절한 염원이 충만한데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 정보 포교사로 그 몸을 드러냈다니 부처님 법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아끼지 못하겠습니다.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세계가 좁아지는 현상은 일견 환영할 일이면서도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속출 시키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탐욕에 젖어 있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펴 보이신 진리야말로 메말라 가는 인류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위없는 휘광인 것입니다. 그 정법의 휘광이 낱낱이 진리의 법체가 되어 컴퓨터를 통해 세계 인류에게 배달된다니 이 세계가 찬란한 불국토의 아침을 맞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 1천 6백여년을 고스란히 세계로 전파하는 인터넷 포교사 '부다피아'탄생에 부처님 가피가 차고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정법이 컴퓨터 통해 세계로 퍼지길

종 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지금까지 정보는 '활자'의 형태였으나, 점차 '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자'로의 대체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PC의 출현과 함께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제는 정보통신의 발달을 토대로 한 시공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 및 교환, 멀티미디어로 표현되듯 데이터의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사이에 인터넷, 더 정확히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급속한 확산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이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보화'라는 말이 지극히 보편화된 지금도 불교계는 '정보화'의 변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부다피아의 개설은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걸음을 세계로 옮긴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손쉽게 세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현대화의 청신호를 보는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불교 위상강화 큰 획 긋는 계기

오 상 환 〈교수불자연합회장〉

최근 사용 인구가 놀라만치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에 한국의 불교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불교는 세계 곳곳에 한 순간도 뒤처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굉장한 포교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관심도의 세계적 증폭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 더욱 빨라질 것도 아울러 기대합니다.

이제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첫발을 내디딘 부다피아는 한국불교를 종합적으로 알리면서 누구보다 정확한 자료·정보를 제공함으로 그 위상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불교정보는 지역적 한계와 이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매우 큰 다양성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는 부다피아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 문을 연 부다피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시공초월 생생한 불교정보 교류를

이 종 옥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에서 최초로 자체 순수한 기술력으로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 본격적인 정보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21세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특히 언론기관이 인터넷에 정보제공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를 일치시켜 시공을 초월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이 몇 백년에 걸친 찬란한 문화유산이듯 현대불교의 데이터베이스도 경전 불교학자료 사찰정보 인물정보 신행정보등을 장기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불특정 질의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용소프트웨어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통한 정보통신 사회의 총아로 부다피아가 위상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교계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 초석

오 상 룡 〈하이텔불교동호회 대표시삽〉

지난해 사설전자게시판의 개통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인터넷 부다피아 개통의 쾌거를 이룩한 현대불교 신문사에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불교계 정보화 현황이 아직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동호회 활동내지는 각 종무소에서의 간단한 PC조작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곧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ID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봅니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불교 신문사의 부다피아는 불교의 미래화를 앞당기는 첫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며 불교계에 정보 전산화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기대됩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각 단체들과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단일 공동체를 형성할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의 건승을 바랍니다.

앞선 내용·기술로 불국토 앞당기길

이 종 복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부시삽〉

사이버스페이스에 붓다의 광명을 내비친다는 것은 21세기 불국토를 향한 또 하나의 발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도들의 신문인 힌두타임즈라는 종교신문이 매일같이 발간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상으로 그 소식을 전함으로 힌두교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과거와는 또 다른 물음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불교신문이 인터넷 부다피아 서비스를 통해 한국불교의 생명력과 안고있는 고민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21세기를 향해가고 있는 불교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100여개가 넘는 불교관련 홈페이지가 있고, 각기 소식지를 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참선 내지는 지역적인 소식에 그치고 있고, 성격이 편중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 서비스는 불교계 최초의 정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충실한 내용과 기술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의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율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용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 · 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햇물이 되었으니 · · · · · ·

신국판/① ②권/각권 5,000원 (③④권 집필중입니다)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

부다피아 ③

부다피아(Buddhapia)=붓다(Buddha)+이상향(Utopia)

현대불교 부다피아 개설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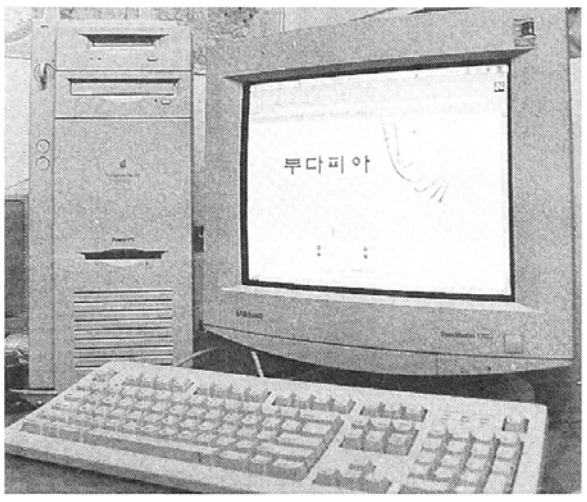
'불교정보세계화'로 불국토 건설
1백50개국 5천만 네티즌에 전법

부다피아가 이달부터 불교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성큼 앞당기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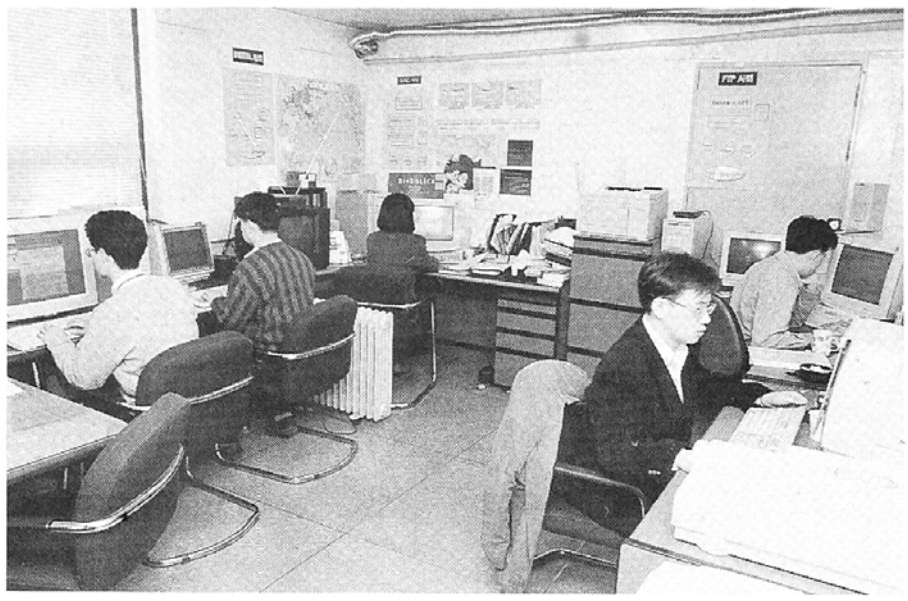
부다피아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불교전문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로 붓다(Buddha)와 이상향의 세계(Utopia)의 합성어로 명명된 것이다. 이는 또 정보화 시대 불교 정보의 세계화를 통해 불국토 건설을 앞당긴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내외 불교 정보가 총망라될 이 컴퓨터 도량은 국내 불교를 체계적으로 묶어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해외 각국의 불교 소식은 물론 불자들의 정신세계까지를 아우르고자 일주문을 활짝 열었다. 이로써 지구촌 불자 모두가 컴퓨터 화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류는 이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1백 50개국의 5천만명 이상이 책상앞의 컴퓨터를 통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정보를 나눠 가지며 정보사회를 향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도 이미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예술 종교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를 이어주고 있다.

한국의 불교계에는 세계 정보 마당에 내세울 만한 불교전문 종합정보 제공 매체가 없었다. 반면 일본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들도 불교관련 정보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인터넷을 통해 불교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부다피아는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자긍심을 세계에 심을 총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 부다피아 초기화면.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이 인터넷에 부다피아 웹사이트를 본격 가동함으로 한국불교정보의 세계화가 실현되게 됐다. 사진은 전략정보기술실에서 정보서비스 자료를 입력하는 장면.

인터넷상의 부다피아

동화상 구축·초고속 통신망 연계
뉴미디어 시대 '정보 포교사' 역할

인터넷에 있어 부다피아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국내적 의의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불교관련 정보를 세계무대로 내놓는 최초의 종합 웹사이트란 점이다. 즉 한국 불교에 대한 세계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선도함으로 첨단 매체 시대의 새로운 포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부다피아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화상과 음성서비스 시스템 개발은 물론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계까지 기술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어 국내최대의 불교 정보센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울러 부다피아는 국내의 불교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형성 홈페이지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는 각 단체들이 갖추고 있는 정보들을 부다피아를 통해 인터넷에 제공하는 일종의 기획사업이다. 부다피아가 기술제공하여 개설할 교계 각 단체들의 홈페이지는 흩어져 있는 국내 불교정보를 통합화한다는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세계 인터넷 마당에도 아직 이러한 종합정보센터 형식의 웹사이트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부다피아의 총괄적 정보제공기능은 인터넷상에서 정보 보유의 다양화를 꾀하는 하나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다피아의 국제적 위상도 미국의 거대 정보검색업체 링크스타의 평가가 대변해 주고 있다. 부다피아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일소시키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세계 인터넷이용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때문에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에 잘못된 정보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부다피아는 이같은 오류를 검색해 전자우편을 통해 잘못 등재된 내용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이해시키고 있다. 이를위해 부다피아는 대표적인 불교정보 제공업체 니치렌, 신부디즘, 티벳관련 불교정보단체와 협의체제를 구성 보다 정확한 정보 교류에 기술력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부다피아가 하는 일과 할일

FTP·전자우편등 종합서비스
정보 컨소시엄 구성등 중점 추진

부다피아는 사설 전자게시판(Buddhapia BBS)과 인터넷 정보센터로 구성돼 있다.

사설전자게시판은 전자우편, 게시판, 파일 송 수신, 대화실, 동호회 운영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곳을 통해 인터넷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운용함으로 쉽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설 전자게시판은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이 국내 전화망 가입자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 할 수도 있다.

인터넷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은 인터넷상의 파일 송 수신 서비스(FTP), 인터넷 원거리 주컴퓨터 접속서비스(TELNET), 인터넷 전자우편 서비스(E-Mail)등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는 부다피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다피아는 점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실시와 정보교류의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부다피아는 본격 서비스 실시와 함께 4가지의 중점 사업을 편다. 불교관련 멀티미디어 정보 구축과 제공, 불교 관련 포럼의 활성화, 불교 관련 소프트웨어 공모전, 부다피아 정보 센터 컨소시엄이다. 이들 사업은 불교 정보의 종합화와 이용자들의 참여 폭 확대, 유사 매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다피아가 명실상부한 불교정보 제공업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며 불교정보 교류의 무대를 증폭시켜가기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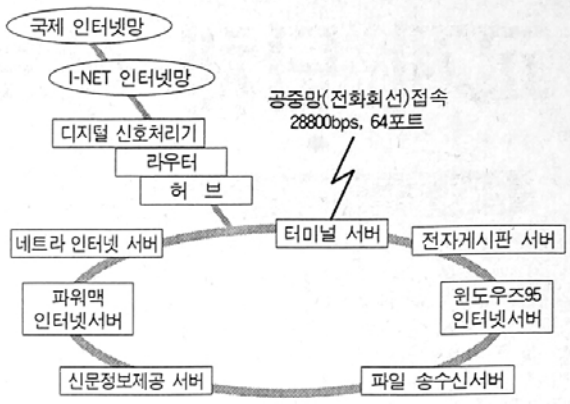
부다피아 정보센터 기술적 소개

멀티미디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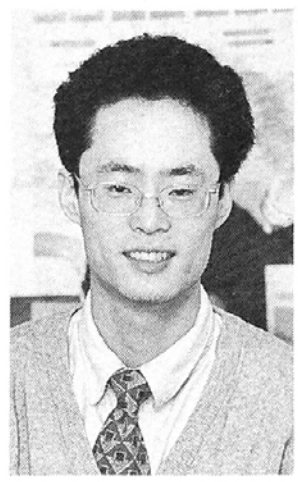
인터넷 부다피아 정보센터는 네트라 인터넷 서버, 9150 파워맥 인터넷 서버, 사설전자게시판 서버, 터미널 서버등 다수의 정보제공 컴퓨터들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버들은 각 데이터베이스 제공 서비스, 파일 송수신 서비스, 사용자와의 접속서비스등 필요한 작업들을 분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터미널 서버가 제공하는 PPP 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전화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접근하거나 부다피아 사설 전자게시판과 I-NET망을 통해 국제 인터넷망으로 연동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부다피아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파일 송수신(FTP), 원격 접속(Telnet), 전자우편(E-mail), 웹(WWW)서비스 등도 받게 된다.



본사 전략정보기술팀 황성록 팀장



"정보 법당 짓는 마음으로 기술개발 전력투구 했어요"

"아직 시작일뿐"… 사용환경개선 위해 노력

부다피아의 개통은 현대불교신문의 창간과 함께 진행해 온 숙원불사였다.

작년 여름 황량한 벌판에 법당을 짓는 마음으로 전략정보기술팀이 꾸려졌을때 이 분야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었다. '진작 있었어야 할 것이 이제 생기려 한다'는데 대한 기대의 발로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설레임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서비스 시작 직후 미국의 정보검색업체 링크스타로부터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불교 일하는 사람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지금의 부다피아 개통은 시작에 불과하다. 준비중에 뼈저리게 느꼈던 국내 불교계의 정보화에대한 인식부족과 체계화된 자료의 부족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다. 부다피아는 이런 숙제들을 함께 풀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가야 한다. 세계적 조류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로 가는 포교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고 화상과 음성을 보내는 정보통신 사회의 포교사로서 가야할 길이 바로 부다피아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땅으로서의 부다피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부다피아 포교법당이 그 일주문을 열어 인터넷 가상공간상의 포교활동을 수행하고 세계인과 한국불교 정보를 공유하게 된 이상 미래사회의 한국불교는 세계속의 불교로 한치의 모자람이 없으리라 감히 자부한다. 세계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 관련 통합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과 함께 많은 해외의 홈페이지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듯 부다피아의 개통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불자들의 부다피아를 이용한 벽없는 정보교류도 기대 한다. 부다피아는 기존의 컴퓨터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계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아직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았기에 더 큰 보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우리 전략정보기술팀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더 좋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주요추진사업들을 설정해 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기도 하다.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빚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항쟁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예고

혜범스님 장편소설



소설 업보

까닭모를 허전함에 가슴시린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삶은 왜 자꾸 치열해지고,
세상은 왜 나를 두고 앞으로만 달아나는지 ·····
벌거숭이로 태어나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도 꿈도 역사도 결국 업으로 받는 과보인 것을
지친 우리의 영혼은 어디쯤 이르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설 업보는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녀가 된 기구한 한 여인과 과계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들의 질박한 인간살이를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業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숨가쁘게 넘어가는 책갈피마다에서 묻어 나오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의 길인 동시에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한다.

반야심경의 작가 혜범스님이 눈물로, 피로 써내려간 살아 있는 혼의 소설 업보.
업보는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바로 業을 그리고 있다.

소설 업보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툭 던지고 간 소설!
그렇다. 은둔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혜범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붉늬네.
꺽이고 짓밟힌 이 땅의 들풀들을 위해
우리는 세속 변화할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지성만으로 채울 수 없는 젊은 영혼들을 위한 소설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전2권 각권 값 6,000원 신국판

빼아픈 우리 현대사를 業으로 조명한 혜범스님의 질박한 인간살이의 화두

밀알 TEL529014O~5 · FAX5792312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일러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이 향 봉 스 님 장 편 구 도 소 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말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 · · ·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값7,000원 345면 신국판 양장본

밀알 TEL529014O~5 · FAX5792312

부다피아 ④

교계 단체·정보 네트워크 구축

국내 유일의 불교정보 서버보유

작년 10월부터 자체 기술력으로 사설전자게시판을 개통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본사의 부다피아는 국내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서버를 가지게 됨으로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구축되는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올해 초 속도 56K(초당 영문자 56만자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의 인터넷 전용 회선을 개설하고 인터넷 제반 시스템에 개발 착수하여 마련하게 된 자체 서버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파일전수송·원거리 접속 서비스·전자우편·뉴스그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불교계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꾸준한 투자와 기술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본사의 노력에 대한 산물로 평가받는 한편 국내 불교계의 제단체와 각종 단, 개인들과 연결하는 불교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정보·빠른 속도 장점
해외사이트 통로역할 '톡톡'

불교계 전반을 묶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멀티미디어 형태의 불교 전문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으로 미래 불교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일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개인 및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주제별로 깊이있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부다피아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네트워크는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 또한 해외 불교단체 사이트들과 연결하여 해외정보를 제공받는 역할도 한다.

그밖에, 자체서버 보유는 모뎀을 통한 일반사용자가 전화선으로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할 수 있고, 향후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 불교계의 열악한 전산화 환경에 타단체들의 전산화 동기를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불교정보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 측면에 있어서도 자체 서버로 제공하는 부다피아 서비스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남수미 기자

해외이용자 축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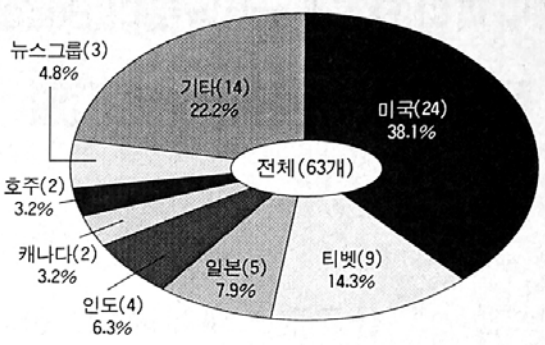
Fred Wolff (Nichiren buddhism, Kempon Hokke 회원)
부다피아 사이트의 개통을 축하합니다.
또한, 니치렌 부다즘 홈페이지에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등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 관계를 유지해 나갑시다.
http://www.asb.com/usr/fswolff/nichiren.htm
E-mail 주소: fswolff@unix.asb.com

Mike Mastaler(LinkStar Communication 기술 자문)
먼저,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개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방문을 하여보니 정말 훌륭한 정보센터입니다.
인터넷 정보 교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http://www.linkstar.com
E-mail 주소: mike@linkstar.com

Drury 대학
부다피아 정보센터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받은 한국 불교 정보는 한국 불교관련 세미나 발표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 스님들의 철학과 생활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mail 주소: student@lib.drury.edu

R&D 정보 센터
저희 R&D 정보센터를 부다피아 정보센터에서 연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저희 회사는 외국 산업과 마켓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ttp://www.kind.co.kr
E-mail 주소: jjlee@kind.co.kr

Charles Muller(일본 토요가쿠엔대 동양사상학과 조교수)
한국내에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정보센터가 생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한국 불교 관련 논문에 관한 평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보내주신 정보를 고려하여 개정된 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코멘트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http://www2.gol.com/users/acmuller/
E-mail 주소: acmuller@gol.com



〈도표 1〉 인터넷 불교사이트 국가별 비율

총63개중 美서 24개 제공

인터넷 해외 불교사이트 현황

티벳 9개·일본 5개등 최근 관심 고조
개인홈페이지는 전세계 2만여개 '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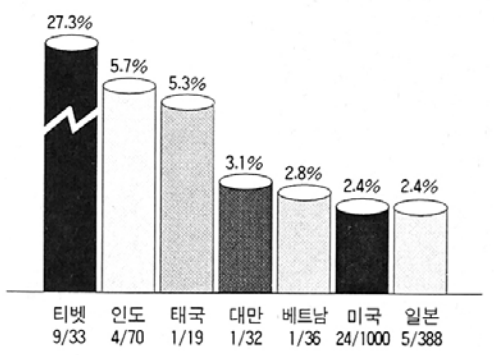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가장 활발한 불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전체 인터넷 불교 사이트 63개에서 미국이 24개의 사이트를 제공, 단연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불교관련 사이트도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 개인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네트워크, 불교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불교관련만 2만여개.

가상공간 속에서의 불교정보 교류가 한창인 가운데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에서는 해외의 불교정보 제공자 현황을 조사했다. 미국의 정보검색업체로 유명한 마젤란을 통해 '불교'(buddhism)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총 불교관련 사이트는 63개(개인 홈페이지 제외)에 이른다. 그 중에서 미국이 24개로 수적으로도 우세하며 제공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불교교리 선불교 명상 토론그룹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2위는 9개의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티벳이다.

특히 티벳의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티벳불교의 전통을 보존하고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가상공간속에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활동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5개의 사이트를 제공하는 일본의 경우 정토종 일련종 등 종파별 그룹을 묶는 네트워크 활동이 두드러진다. 〈도표1 참조〉

각국에서 제공하는 총 사이트 중에서 불교관련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도표 2〉 국가별 인터넷 불교사이트 보유비율

불교관련 사이트 9개를 제공하는 티벳의 경우, 국가 전체 사이트가 33개임을 고려하면 불교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3%로 상당히 높은 불교 관심도를 나타낸다. 인도의 경우도 불교관련 사이트는 4개에 그치지만 인도에서 제공되는 총 사이트 70개와 비교해 볼 때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태국 대만 일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도표2 참조〉

한편 마젤란을 통한 불교사이트 검색정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불교관련 사이트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번에 부다피아가 독립적 자체 서버를 구축, 해외 불교사이트 대열에 들게 되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통로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남〉

'불교학 가상도서관' '달마넷' 인지도 높아

이용자 많은 해외 불교사이트

PC컴퓨팅사가 접속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사이트의 검색현황을 통계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교관련 사이트 중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 불교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불교학 가상 도서관(ANU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 '불교 실천 윤리학지(Journal of Buddhist Ethics)' '달마 넷(Dharma Net International)' '신부디즘 네트워크(Shin Buddhism Network)' '트리싸이클(Tricycle)' 등을 뽑고 있다.

포인트 조사기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5%에 선발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불교학 가상 도서관'에서는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 불교 사이트를 주제별로 연계할 수 있어 인터넷 초보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불교학 일반 이외에도 티벳불교와 선불교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공되고 있다.

불교와 윤리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정기적인 전자잡지로 인정받는 '불교 실천 윤리학지'에서는 석학들의 소고와 논문 등을 접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전자출판되는 윤리에 관한 자료들과 세계 여러 석학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 해외사이트의 연계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오는 10월에는 '서구 불교에 있어서의 윤리'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참가자들의 논문 등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비영리 불교단체들도 있다. '달마 넷'의 경우 자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달마넷파일 아키(DEFA)라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세계 곳곳의 사설전자게시판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격월로 전자출판되는 가소(Gassho)가 가상공간 속에서 불교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달마 넷의 소식지로 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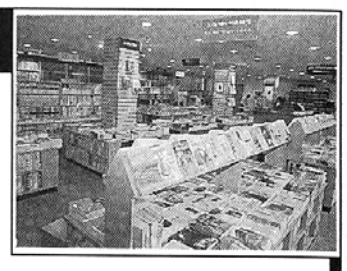
'신부디즘 네트워크'도 정토종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고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로 일본에서 제공한다.

불교종합 정보지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트리싸이클'의 경우 계간으로 독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것 이외에 인터넷에 허브를 개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트리싸이클에서 이용자들은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기도 하고 트리싸이클의 편집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쌍방향 교신이 이루어진다.

불교학… 주제별 연계 초보자 접속용이
불교실천… 세계석학 소고·논문 다수 수록
달마넷 사설 전자게시판 연결망 갖춰
트리싸이클 편집진들과 쌍방향 교신가능

〈해외 불교사이트 찾아가는 주소〉
불교학 가상 도서관
▲http://coombs.anu.edu.au/
불교 실천 윤리학지
▲http://www.psu.edu/jbe/
달마 넷
▲http://sunsite.unc.edu/dharma/
신부디즘 네트워크
▲http://www.mew.com/shin/
트리싸이클
▲http://www.well.com/user/tricycle/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우리 모두 동일한 존재다" 주장

보르헤스의 ⑩ 불교강의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③ — 베단타학파 ㊦

베단타학파의 라마누자(Ramanuja)는 해방된 영혼은 죽음 뒤에 순수의식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이들은 이슬방울이 바다물에 합류하듯 개인의 영혼은 신성(神性)에 흡수된다고 말한다. 에드윈 아놀드 경(Sir Edwin Arnold)은 자신의 시(詩) '아시아의 빛' 끝 귀절을 '이슬방울은 빛나는 바다속에 소멸한다' 고 썼다.

개인 영혼 神性에 흡수

베단타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여러 모습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결코 스스로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혹은 마법사가 허황되게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스스로는 항상 마법사인 것처럼, 그렇게 세계는 브라만에서 나오지만 브라만 자신의 본질이 변화하는 법은 없다.' 13세기 페르시아의 범신론자 할랄 우딘 루미(Jalal-Uddin Rumi)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그물을 던지는 자요 낚이는 고기이며, 거울이면서 비치는 영상이며, 함성이며 메아리이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글을 썼다. "고문하는 자와 고문받는 자는 동일인이다. 고문하는 자는 자기가 고통과는 상관없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고문받는 자는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믿지만 그것 역시 착각이다." 에머슨의 시 '브라만' 은 이렇게 시작한다.

"만일 붉은 암살자가 죽인다고 생각하고
피살자는 암살 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모르고 있다.
내가 때로는 이 길을 때로는 저 길을
걷는다는 것을"
또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서 벗어나려는 자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벗어나 날려고 할때
그 날개가 바로 나다.
나는 의심하는 자이며 그 의심이다.
나는 브라만이 부르는 노래이다."

보들레르도 "나는 때리는 손이며 맞는 뺨이다"고 말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는 전쟁에 직면한 절박한 순간에 적군들이 모두 친척임을 상기하며 활을 놓고 땅에 털석 주저앉는다. 그는 양편 군대속에서 "스승과 부친과 아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외 친척들"을 보고 칼을 거둘 결심을 한다. 그때 마부로 화신하여 아르주나의 마차를 몰던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현신하여 전쟁이란 한갓 환영이란 것을 일깨운다. "산자를 위해서도 죽은자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다. 너도 그랬고, 저 왕자들도 그랬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을 것이다…이 사람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에 의해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다. 육신의 소유주가 소년, 청년, 노년기를 거쳐 가듯이 죽은 후에도 다른 육신을 얻게 될 것이다. 현명한 자는 육신의 죽음에 미혹되지 않는다. 칼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불도 그를 태울 수 없으며, 물도 그를 적실 수 없으며, 바람도 그를 말릴 수 없다." 크리슈나는 더불어 이렇게 덧붙인다. "전쟁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크리슈나의 이런 말은 플로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킨다. "이번 연극에서 죽는 배우는 다음 연극에서 역할을 바꿔 다시 출연한다. 연극에서 죽는 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음은 마치 연극배우들이 역할을 바꾸는 것처럼 몸을 바꾸는 것이다."



◇ 전쟁터에 나간 아르주나는 적군들이 모두 자신의 친척임을 알고 무기를 놓고 주저앉는다. 크리슈나 신은 아르주나의 마부로 현신하여 전쟁은 한갓 환영임을 일깨운다. 이 그림은 〈바가바드 기타〉의 이같은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인도 육파철학 중 산키야학파와 베단타학파를 소개한 보르헤스의 글은 특히 이 두 학파의 가르침의 핵심인 '자아(自我)의 아이덴티티(正體性)'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학파가 설파한 정체성의 문제에서 보르헤스가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체(modern ego)의 문제는 데카르트에서 헤겔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계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가 되어 왔다. 보르헤스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이 근대적 주체에 대한 회의를 표시했는데 그 모티브를 산키야학파와 베단타학파의 교설에서 빌어왔다.

無我사상 근간 이뤄

예를 들어, 산키야학파는 배우로서의 자아와 관객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우리는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 배우를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자각함으로써 보다 큰 대아(大我)와의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그의 짧은 평론 〈보르헤스와 나〉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보르헤스'는 배우에 불과한 것이다. 번잡한 세상사는 (배우)보르헤스의 몫이다. (배우)보르헤스에 관해서는 우편함을 통해 소식을 듣고, 문인 인명사전에서 그의 이름과 이력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보르헤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작가 노르헤스는 '나'가 아니고 '그'이다. 반면 '나'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관객인) 존재이다. '나'는 끊임없이 '보르헤스'에게서 도망치지만 그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고, 세상은 나를 '보르헤스'로 기억한다. 이렇게 내 생은 도망자의 생이었다. 그런데 보르헤스와 나 우리 둘 중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조망하는 브라만의 차원에서는 암살자와 피살자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생각을 차용하여 보르헤스는 그의 단편소설 〈신학자들〉을 썼다. 이 소설에서 신학적 입장이 다른 두 신학자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火刑)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신학자도 후일 죽게 되는데, 그는 사후(死後) 신성의 마음 속에서는 정통파와 이단자, 고발자와 희생자, 증오하는 자와 증오받는 자 모두 동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무아(無我)에 이른다.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근대적 주체에 대한 검토로 초점이 모아지고 많은 탈(脫)근대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불교의 무아사상이다. 그리고 서구에서 이점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한 것이 보르헤스이다. '탈근대의 창시자'라는 보르헤스의 별명은 이런 연유로 붙여진 것이다.

脫근대주의 사상가들에게 자아탐구 방법 제시

"나는 그물을 던지는 자요 낚이는 고기이며 거울이면서 비치는 영상이고 함성이면서 메아리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종 상 〈불교아동문학가〉

봄빛 완연한 교정에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저 천진한 아이들의 가슴에는 무슨 꽃이 봄날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오래 교정을 드나든 교사로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로서의 오늘 내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린이들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 본다. 저들은 모두가 부처님이다. 우리 가족은 도봉산 천축사를 다니는데 그 절의 부처님 만큼이나 아이들은 나를 편하게 해 준다.

절에가서 예불하고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이 어느덧 내 삶의 중요한 줄기로 자라 와 있음을 느낀다. 이것도 하나의 수행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억센 안동 사투리의 아버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들은 그 설화들이 내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내가 자란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서 뒷산을 넘으면 소백산 끝줄기의 하나인 학가산(鶴駕山)이 있다. 학이 날개를 펴고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이 산의 최고봉은 큰 바위덩이로 우뚝 선 국사봉(國師峰)인데, 이 국사봉에서 동편 능선을 따라 30미터 가량 내려가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커다란 동굴이 있다. 사람 십여 명이 들어앉을 만한 넓이의 동굴 안쪽에는 샘이 있어 시원한 물이 그대로 감로수(甘露水)라고 했다.



또 국사봉 남쪽 기슭에는 애련사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신라때 세워졌다는 광흥사가 있다. 광흥사는 우리 마을에서 산길로 십여리밖에 안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아버지는 절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마을 사람들과 같이 광흥사에 갈 때면 학가산에 있는 동굴에 대한 전설이며 애련사, 광흥사의 유래를 이야기해 주셨다.

"아주 먼 옛날 신라적 이바구지. 능지대사라카는 스님이 있었지러. 능지대사는 이상한 술법을 배와 가주고 맹산대천을 찾아 나섰거덩. 그래, 이 학가산에 와보이 큰 굴이 있는게라. 욘지러 여게가 좋겠다카며 짐생매치러 굴속에서 살았지러."

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 되풀이해 주셨지만 그것은 들을수록 새로운 감동으로 내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바위동굴을 에워싼 아름다운 봉우리들과 바위언덕이며, 능지대사의 부름을 받고 고운 날 개옷을 펄럭이면서 구름 사이를 날아내리는 천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 황홀해지곤 했다. 그러나 끝내 그 동굴에는 가보지 못했다. 국사봉에는 여러번 갔지만 그 동굴까지는 길이 험하다고 어른들이 못가게 했다. 내가 어른이 된 뒤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능지대사라고 했던 그 전설속의 스님은 능인대사였다. 그 기록은 안동의 옛 역사를 적어놓은 〈영가지(永嘉誌)〉에 있었다. 바위굴의 이름도 능인대사가 살았다 하여 능인굴이라고 했다. 능인대사는 신라의 대덕(大德)으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 굴에 와서 숨어 살았다고 했다.

능인대사는 신통술이 뛰어나 끼니때가 되면 주술을 적은 종이를 바람에 날렸다고 한다. 그러면, 금방 선녀처럼 예쁜 여인들이 구름을 타고 날아와서 산해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내놓는다고 했다. 이런 능인대사의 소문을 듣고 의상조사 밑에서 능인대사와 함께 공부하던 부석사 스님들이 찾아왔으나 대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구름 밖으로 떠나버렸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늘 바쁘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농사에 관한 일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절에 갈 때면 능인대사 이야기도 해주셨고, 광흥사 응진전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참으로 큰 자랑이었고 즐거움이었다.

부처님이 나신 사월 초파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애련사 옆의 덕진골로 모여 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 밑에 촛불을 켜고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에게 하듯이 불공을 드렸다. 어머니는 초파일뿐만 아니라 집안에 조그만 걱정거리만 생겨도 그곳으로 찾아가서 바위 앞에 촛불을 켜고 부처님께 하듯이 절을 했다. 어머니는 수없이 절을 하고는 두손을 모은채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번도 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지나가면 그립고 아쉬운 법이라지만 나는 어린날 아버지께 들은 능인대사 이야기며 어머니를 따라 덕진골에 가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글을 보여줄까"

동심은 모두 부처님…나를 편안하게 하는 대상

성하출판 TEL : 778-6826~7 FAX :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기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핑계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갈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4〉

釋難文
(석난문) ②

楞嚴經 曰 云何賊人
능엄경 왈 운하적인
假我衣服 神賦如來 造種種業
가아의복 비관여래 조종종업

능엄경에 이르기를, '어떤 도둑놈이 나(부처)의 의복을 빌어입고 여래를 팔아 명리나 탐하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하시니

非濟世航也 地獄種子爾
비제세주항야 지옥종자이
縱饒彌勒下生 出得頭來
종요미륵하생 출득두래

(그런 중들은) 중생을 고해에서 건져줄 배·항구가 아니라 지옥종자이니라 비록 미륵보살이 하생한다한들 (그때에)어떻게 머리디밀고 세상에 나오랴

身已陷鐵圍 百刑之痛 非一朝一夕也
신이함철위 백형지통 비일조일석야
若今爲之者 或百或千
약금위지자 혹백혹천

부처님 의복 빌어입고 명리 탐하면

미륵보살 하생 한다해도 구제 못해

(그때는) 이미 몸은 지옥에 빠져 백가지 형벌의 고통이 일조일석이 아니니라 (두고두고 계속되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스님되려는 이가 혹은 백, 혹은 천

至千萬計
지천만계
形服而已 焉論其中 何有哉
형복이이 독론기중 하유재

심지어 천만에 이른다 하더라도
머리깎고 먹물옷 입은 모양새 뿐이라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들중에 무슨 스님다운 스님이 있으리오

所謂鳧鷖而鳳鳴也 碌碌之石 非玉也
소위지한이봉명야 록록지석 비옥야
霸嫩艾榮 非雪山忍草也
소부애영 비설산인초야

이른바 수리의 날개요 봉의 울음이라 (이른바 날개짓만 사납고 소리만 요란한지라) 푸릇푸릇한 돌이라고 옥이 아니며 쑥이 우거져도 눈덮인 산의 인동초가 아니다(무능한 중들이 때를 만나 많이 나오더라도 저 설산고행을 견뎌내는 참다운 스님은 아닌것이다).

今反責以丁錢 示民於憎不然
금반책이정전 시민어승불연

나라에서 승려제도를 두는 것은 본래 (왕실과 국가의)복을 빌기 위함이거늘
오늘날엔 도리어 병역의무를 돈으로 갚게하여 중이 (제구실못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니

使吾徒 不足待之之至也
사오도 부족대지지지야
只如前日 肖王建 永安崇
지여전일 육왕련 영안숭

우리들로 하여금(스님다운) 대접을받지 못하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저 전날에 육왕련(육왕사의 회련선사)과 영안숭(영안사의 계숭선사)과

龍井淨 靈芝照
용정정 영지조
一狐之腋 自餘 千羊之皮 何足道哉
일호지액 자여 천양지피 하족도재

용정쟁(용정사의 원쟁선사)과 영지조(영지사의 원조율사)는 한마리 여우의 겨드랑이 가죽이요 나머지는 천마리 양의 가죽이라(양가죽은 구하기 쉽고 여우 겨드랑이 가죽은 구하기 어려움, 귀하고 천한 뜻) 어찌 족하다 이르랴.

於戲 佛海騭淳 未有今日之甚也
어희 불해예재 미유금일지심야
可與智者道 難與俗人言
가여지자도 난여속인언

슬프다. 부처님 법바다에 더러운 찌꺼기가 오늘같이 심한적이 없었으니
가히 지혜있는 자와 더불어 길을 같이 갈뿐 속인과 더불어 말하기가 어렵구나.

諸賢頌句
(제현송구) ①

龐居士頌
방거사송

방거사 게송

但自無心於萬物 何妨萬物常圍繞
단자무심어만물 하방만물상위요

단지 스스로 만물(경계에)에 마음없으면(마음두지 않으면)
어찌 만물이 늘 둘러싼들 방해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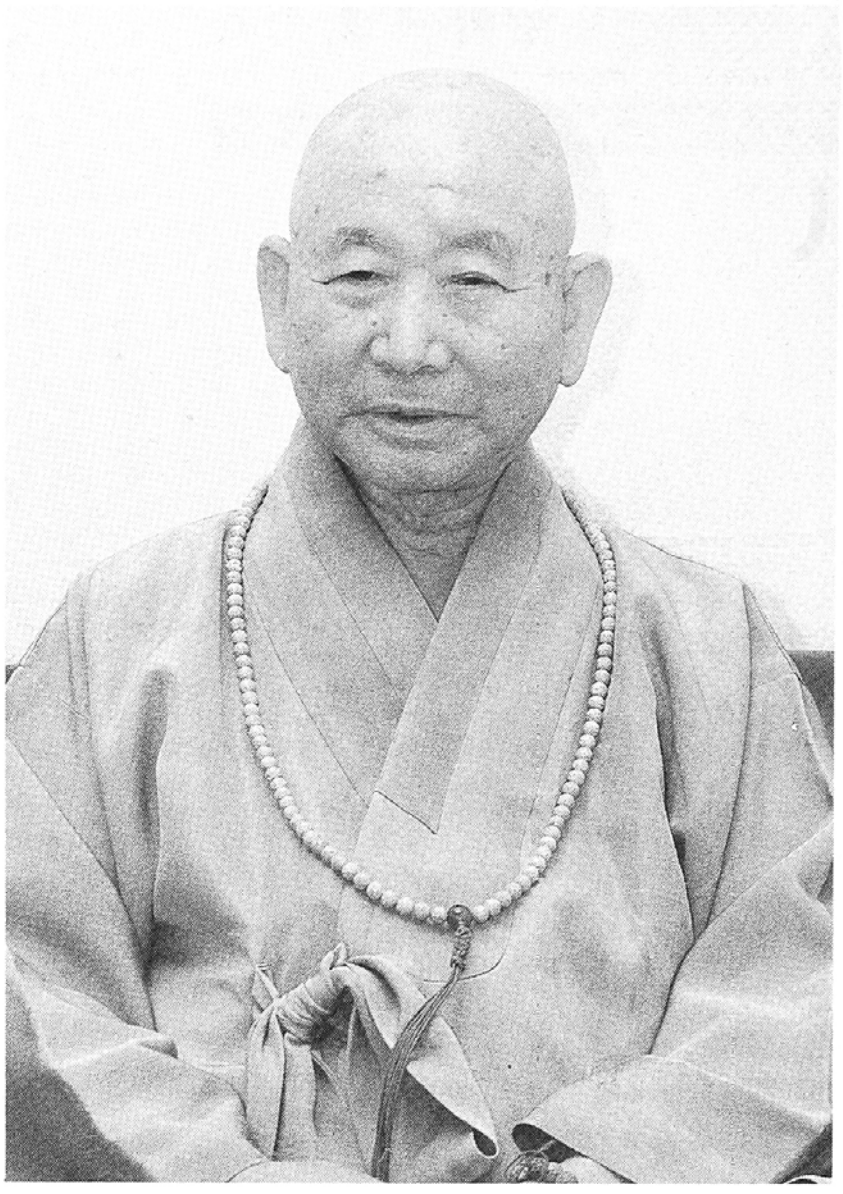
國家度僧 本爲新福
국가도승 본위기복

龍眼

★ 지상법석

"보시는 베푸는 것 아니라

법홍스님 〈원효종 종정〉



약력
- 1915년 강원도 고성에서 生
- 23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
- 유점사강원 졸업
- 일본 연력사 학원전수원 졸업
- 해인사 층림 수료
- 백만일 염불회 결성
- 원효종 총무원장 역임

옛날 얘기 한 꼭지로 오늘 법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경남 산청 인근의 산중에 초라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오래된 절이라 비가 새고 벽이 무너져 새로 고쳐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의 주지인 묘신스님이 중창 불사를 발원하고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했습니다. 회향하기 전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한지 99일이 되는 날 밤에 스님은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의 노인이 황금빛 옷을 입고 나타나 "무슨 잠을 그리 곤하게 자느냐"며 스님을 깨우더니 중창불사는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그말을 듣고 기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고 물었지요. 백발의 노인은 "내일 아침 권선책을 들고 산을 내려가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부탁하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다"라더니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꿈을 깬 스님은 기이한 꿈이란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고 새벽 일찍 권선문을 들고 산길을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아랫녁에서 건장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그 고을 김풍헌네 거습이었습니다. 스님은 '머슴이 어떻게 절을 중건할 시주를 하겠느냐'는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어제밤 꿈

> 베품은 받는 사람을
> 기쁘게 할 뿐아니라
> 스스로 선업을 짓는
> 씨앗을 뿌리는 일

이 심상치 않아 "여보게 우리절 중창 불사에 시주를 좀 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제밤 꿈얘기까지 들려 주었습니다. 잠자코 얘기를 듣던 총각은 "돈을 고쳐 짓는데 얼마가 듭니까"라고 물었어요. "2백냥이면 우선 대웅전은 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소만…" 끝말을 흐리는 스님과는 달리 총각은 "2백냥이라, 제가 10년동안 머슴을 하며 모아둔 돈이 1백 60냥 있고 주인에게 받을 세경이 40냥이 있으니 꼭 됐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2백냥 시주하는 것으로 그 책에 올리시죠"라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신스님은 총각의 시원스런 대답이나 간밤의 꿈이 모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절로 돌아와 불사를 시작 했습니다. 총각과 약속한 열흘이 지나서 스님은 김풍헌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총각은 어김없이 돈 2백냥을 준비해 뒀다가 스님께 바쳤습니다. 스님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인부를 구하고 목재를 구하는등 분주히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채 안지나서 김풍헌네 집에서 사람이 올라 왔습니다. "스님께 시주를 한 그 머슴이 복을 받기는 커녕 앉은뱅이가 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절에서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 한 걸음에 김풍헌네집으로 달려가 보니 그 머슴 총각이 정말 앉은뱅이가 되어 있지 뭡니까. 스님의 등에 업혀 온 그 총각은 절에서 스님들의 간호를 받으며 지내게 됐는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 입니까. 절에 온지 며칠 안되어 이번에는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주지스님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총각은 여전히 사람좋게 웃으며 "스님 제가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그 과보를 이렇게 받나 봅니다. 제가 죽거든 염불을 잘 해주셔서 업장을 녹여 주십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날 깊은 밤중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절을 몇바퀴 돌더니 번개같이 총각의 방에 들어 총각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지 뭡니까. 주지스님은 너무 충격이커서 절 불사도 그만두고 함께 지내던 스님들도 다 떠나라고 한뒤 절을 부숴버릴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불사를 하면 무엇하느냐는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도끼를 들고 법당에 들어가 본존불의 왼쪽 어깨를 내리 쳤는데 순간 스님은 '그래도 내가 중된 몸으로 부처님상까지 손수 부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끼를 뽑으려했으나 왠일인지 깊히 박히지도 않은 도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겁이 난 스님은 절에 불을 지르고 짐을 챙겨 만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절 하나 중수 못하고 사람을 죽게 했으며 부처님상에 도끼질까지 했으니 오죽이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세월은 흘러흘러 30여년이 지나고 그 고을에는 젊은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원님은 부임 첫날 희한한 꿈을 꾸었지요. 백발에 황금빛이 찬란한 노인이 나타나서 "너는 전생에 이 고을에서 머슴을 살다가 어느 절에 많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했으나 그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 몇생을 두고 받아야할 과보를 짧은 순간에 다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해 이 고을 원님으로 왔으니 그 절을 찾아 중창을 하고 묘신스님을 찾아 그 절에서 수행토록 하라. 묘신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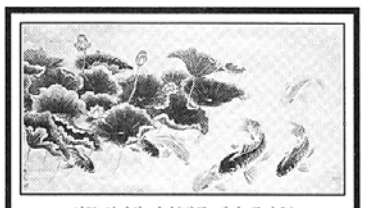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슁글
전화 (053) 742 - 7855
015 -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연꽃 잉어화 기타(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버락 맞은 대추나무(도장, 부적재료)
진품 식별법 및 진품 공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실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신체 복용 기하 · 공복감이 없다
• 냉, 복통, 해독작용, 염분 · 자연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영불상해수련 · 선관삼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통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곧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0593)34-1115-6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흥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옥천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심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전 불시,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친절한 1 : 1「담임 관리제」
※ 환급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지상법석

받은것 돌려주는 보은”

“사람으로 몸을 받고 태어난 것도 여러생 선업을 쌓은 까닭 부모 형제·이웃은 시은 베푸는 부처님”

나 한사람 재시·법시·무외시로 중생계 이롭게해 보시행 자랑하고 반사이익 생각하면 악업종자

비구도 그간 운수행각을 하며 견성의 경지에 이러렀나니…”하더니 홀쩍 사라 졌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부처님 왼쪽어깨에 꽂힌 도끼는 누가 뽑으려해도 움직이지 않더니 원님이 잡으니까 쉽게 뽑혀졌답니다. 그러니 그 젊의 중창을 말을 인연은 원님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내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나는 보시의 공덕을 얘기 하기위해 먼저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남에게 주기에 앞서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데서 중생의 악업은 끝이 없이 이어 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보살이 육도만행을 닦는데 있어 무엇보다 보시바라밀을 많이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도 보시를 제일로 꼽는 겁니다. 보시는 그냥 베푸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품을 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쁜 마음은 또다른 선업을 짓게 하니까 보시는 수많은 중생이 선업을 짓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사람의 한가지 보시행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업을 짓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씨 좋은 며슬 총각이 이승에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시주를해 여러생의 악업을 한생에 다 제하고 다시 인간계로 와서 또 여러 스님들을 시봉하고 여러 신도들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보시공덕은 나 한사람의 공덕이 아니니 어느 공덕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보시를 하는 의미도 잘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짓게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흔해지니까 사람들이 남을 위해 뭔가를 베푸려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보시행이 자랑으로 바뀌어지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베풀어도 그것이 자랑이어서는 안됩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여 마침내는 온 중생계가 이로워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행인데 나를 내세워 ‘나는 얼마를 희사했다’하고 자랑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보시의 공덕은 사라지고 높아진 아상으로 미혹의 풀뿌리만 키우는 것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에 귀의한 불자들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베푸는 행동으로 누군가 또 한번의 좋은 일을 할 것이란 생각에서 멈춰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베풀었으니 뭔가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것이란 허황한 기대를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욕심이고 그 욕심은 악업의 종자를 싹트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육신을 빌려 입고 이승 인연의 실타래를 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인생에서 나를 더 살찌우고 더 높히고 더 유명하게 하려는 생각에 얽매여 참다운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도 여러 생의 선업을 가진 까닭이겠는데 더 나은 업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허망한 명리에 젖어 악업만 쌓는다면 어느생에 성불의 원력이 회향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유한하고 보잘것 없는 중생이니 서로 도우며 성불의 선근공덕을 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삼시(三施)라고 해서 보시의 방법에 세가지가 이습니다. 그 첫째는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재시(財施)인데 재물의 궁핍함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재물로 궁핍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 행해야할 불자의 도리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은 법시(法施)입니다. 무량한 부처님의 교법을 말해 주어 사람의 무지를 일깨우고 지혜를 부추겨 주는 일은 바로 성불의 종자를 심어 주는 일이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무외시(無畏施)인데 남의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 하면 아무런 일도 못하고 정신이 쇠약해져 병을 얻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화평하게 해 주는 공덕도 그 크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병중에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약해 집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병원을 조직적으로 다니며 환자를 상대로 포교해주고 전도를 하는데 매우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가 더 큰 이유인것 같아 기분이 개운치 않을 만큼 열성적이라지만 무외시를 아는 불자들도 반성의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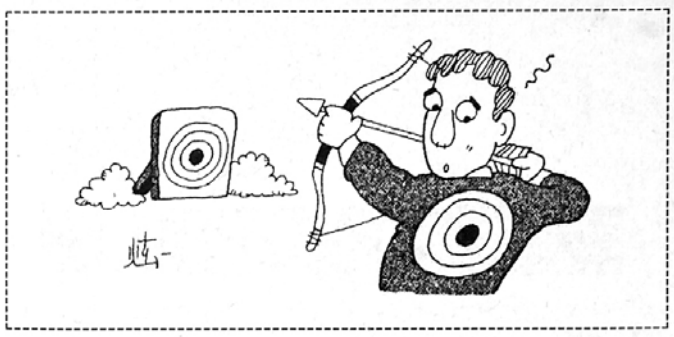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욕심 챙기고 남 짓밟고 살기에 지구상에 전쟁·범죄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귀의해 살고 수행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생노병사의 끝없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 열반의 대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온 인류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가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살아가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서라고 할 수도 있고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부처님 교설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에서 지켜야할 도리를 잘 지키고 산다면 이 땅은 극락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좁은 논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이웃이 잘 살고 온 인류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단 하루도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단 한 시간도 범죄와 비도덕이 발생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적자생존의 논리가 인간 삶의 현장에 너무 만연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교인은 그런 동물적인 투쟁의욕을 제거해 나가는 일에 앞장 서야 합니다. 특히 불자들은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합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이 모두 인간의 평등과 화합으로 귀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행과 나의 견성성불도 결국은 아직 미혹세계에 있는 중생을 구하고자 함에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법시를 얘기 했지만 부처님이 베푸신 법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짧은 언설로는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법시를 입은 우리도 한량없는 진리의 몸을 얻어 드넓은 법시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의 공덕을 다투기에 앞서 내가 입은 보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몸을 받아 태어난 것도 나만의 공덕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도 나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은 모두 나에게 시은을 베푸는 부처님들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나에게 시은을 베푸는 보살님들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저마다 잘났다고 말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야말로 보시를 앞세워 악업을 짓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현상을 지어낸 것도 우리 중생계의 공통 책임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모으고 서원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않고 나만을 위해 복을 빌지 않고 중생계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내가 잘 살고 나부터 열심으로 수행정진하겠다고 서원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5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②

분별지의 한계

‘오온개공’ 직관으로 꿰뚫어보아야 확연

경험·지식·사고의 확대위해 큰지혜 필요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사물을 볼 때는 분명히 공(空)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經)은 말하기를 반야로 볼 때는 오관으로 본 모든 것이 사실은 공(空)이라고 하였다. 경이 맞다면 우리가 오관으로 본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현대물리학은 ‘오온개공’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공간(時空間)과 물질 모두가 무(無)에서 나왔다고 추론하고 있다.

물리학자들이 오랜 노력과 많은 논쟁끝에 최근에야 관찰한 바를 경전의 저자는 어떻게 2천년도 넘는 이전에 ‘오온개공’이라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전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야로 비추어 볼 때 오온개공이라고 하였다. 반야는 오관으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분별지(分別智)가 아니고, 직관으로 꿰뚫어 보는 직관지(直觀智)를 뜻한다. 모든 사물의 진실을 한꺼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반야지(般若智)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반야지가 없는 사람이 헤아릴 길은 없지만 적어도 분별지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있다. 분별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경전이 말하는 바가 왜 그렇게 일상적 경험이나 사고방식과 다른가를 헤아릴 길이 있는데 분별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 있다. 이 증명을 괴델(Kurt F. Godel, 1906~1978)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의외로 쉽다. 미적분학의 발견을 놓고 공을 다툰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Newton)과 철학자 라이프니츠(Leibnitz)사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언쟁이 있었다고 하자.

A. 뉴턴: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라이프니츠: 뉴턴은 거짓말쟁이다.

B. 뉴턴: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라이프니츠: 뉴턴은 정직한 사람이다.

A의 경우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뉴턴의 말은 진실이고 라이프니츠의 말은 거짓일 것이므로 “뉴턴은 정직한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라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반대로 뉴턴이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모순없이 반대의 결론은 얻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A와 같은 언쟁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와 같은 경우만 있다면 단순 논리로 판단한 것이 언제나 옳을 것이다.

B와 같은 언쟁이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의 논리로는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정하더라도 여기에는 모순이 따른다.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니 그보다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 밝혔다고 하자. 그러면 뉴턴의 말은 진실이므로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데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따라서 뉴턴이 거짓말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뉴턴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뉴턴이 거짓말쟁이라고 가정해도 논리적 모순이 따른다.

인간 지성의 결정체가 수학이고 수학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학의 체계에는 모순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 엉뚱한 결과를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데 풀이하여 설명하자면 “분별지로 시비를 가리려들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언쟁사례 B와같은 경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과 “분별지로 관단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더 큰 지혜가 필요하며 이 큰 지혜가 관단한 것도 또 더 큰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한없이 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전의 첫머리는 바로 이 분별지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냥 오온개공이 아니라 반야를 들어 오온개공이라고 설하므로써 분별지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야로 비출 때 오온개공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수학이 이 분별지의 한계를 증명하였고 물리학이 자연현상에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관찰하므로써 단순논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아가 오온개공을 추론하게 된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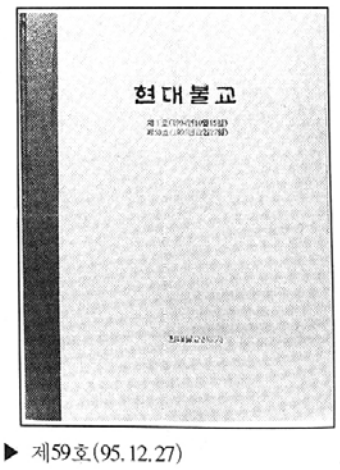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 15) ▶ 제59호(95. 12. 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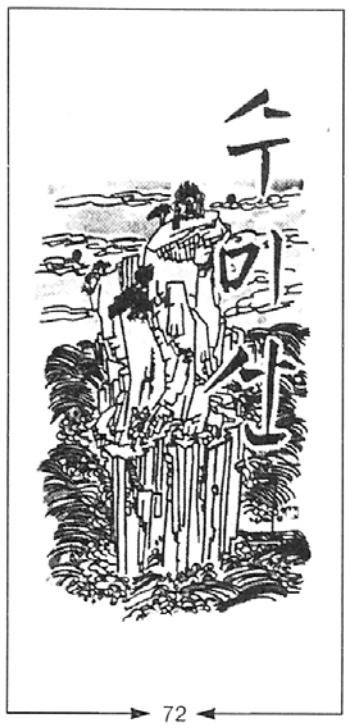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하소설

명사산의 밤

"이 하룻밤이야말로 운명이 바뀌는 때이다
각자의 마음을 동굴처럼 텅 비워라
그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활과 칼을 모래속에 묻은 대원들은 강도집단에서 수행자로 변신했다



새

두령 도리가 이끄는 일행은 7일 동안의 사막 횡단으로 양관(陽關)에 당도하였다. 그것은 좀더 아래쪽의 대천하(大泉河) 쪽으로 가야할 길을 잘못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갈래의 주장이 있었다. 대천하를 따라 삼위산(三危山) 북쪽 끄트머리로 들어서는 길과 당하(黨河)를 거쳐 월아천(月牙泉)을 따라가는 길이 조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때 도리가 양관 쪽으로 가서 하룻밤을 쉬도록 하는 길로 바꾸었다.

하지만 도리두령 조차도 양관에 머물 생각은 없었다. 차라리 옥문관(玉門關)으로 나아가 거기서 사주(沙州)의 유적이라도 살핀 다음에 목적지에 가도 되는 것이었다.

양관의 하룻밤 천막에서 오랫만에 술을 허락하였다. 술 한 모금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사람도 있을 만큼 독한 것을 세 사람에 한 병씩 배당되었으니 어지간히 취할 수 있는 정도였다.

"오랫만에 곯아 떨어지거라 지옥을 무사하게 건너왔으니까"라는 술 담당의 말은 공치사만이 아니었다.

만화는 사막 한복판에 사흘 먹을 전병만으로 버려두고 온 부두령이 떠올랐다. 아니 그의 심안(心眼)은 이미 이승을 떠나 부두령의 혼령이 아귀중생계에 태어나서 두 손바닥에 풀이 돋아나며 먹을 것을 빌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합두가 그런 만화를 알아차렸는지 한 마디 던졌다.

'아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부두령이 태어나서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오직 사막의 백골이 되어가고 있는 부두령의 모양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 그에게는 푸대접입니다."

불이는 두령 도리의 부장(副將)정도가 되어 일행을 이끄는 간부노릇 때문에 두령과 함께 있었다. 천막 안까지 사막의 모래먼지가 들어와 방금 꺼내놓은 가죽주머니도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야릇한 것은 그들의 숙영지가 너무 다급하게 정한 때문인지 사막묘지 부근이었다. 모래무덤들은 깃대들이 꽂혀있었다.

그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것이 지난 시절의 봉화대였다.

"좋은 잠자리로군… 잠자다 그대로 숨이 넘어가면 바로 이곳이 무덤이 될터이지…."

해가 질 무렵 여러개의 회오리바람이 여기저기의 허공을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실로 얼떨떨한 광경이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곳이로군."

"언제 우리에게 마음놓고 지낼 곳이 있었던가? 봄날 기러기만도 못한 신세인데…."

"하기는…"

불이는 그의 전생인가 현생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기억 가운데서 이 양관땅을 읊은 시를 떠올렸다. 불교에 귀의하여 농익은 시를 씀으로써 시불(詩佛)이라고 칭하는 바 되었던 왕유(王維)의 시였다.

낯선 땅 절역으로 가는 양관길은
큰 사막과 요새의 먼지 뿐인데
봄에는 때로 기러기까지 보이지만
만리 먼 길 오가는 나그네는 드물구나
목초는 천마를 따라왔고
포도도 한나라 사절이 가져왔지만
마땅히 외국을 떨게 하려면
구태여 화친만을 고집할 손가
(絶域陽關道
胡沙與塞塵
三春時有雁
萬里少行人
首蓿隨天馬
葡萄漸漢臣
當令外國懼
不敢覓和親)

이 불심 깊은 시인인데도 화친보다 전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가 인상적이다. 사실인즉 한족으로 보면 변새의 오랑캐는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족을 둘러싸고 있는 변방이나 오지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한족이야말로 어느 민족보다 교활하고 악랄했던 것이다.

다음날 강도집단 20마리 낙타행렬은 이 따금 양떼가 나타나는 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오아시스지대에 들어 온 것이다.

동북쪽으로 엄청난 크기의 사구를 끼고 그 유려한 모래비탈에 드리워진 그늘과 함께 그들의 행로는 평탄하였다. 그러자니 군데군데 질긴 수양버들 따위가 제법 기운을 쓰고 있는 월아천이 내려다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두령은 갑자기 그 험준한 모래비탈을 올라가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늙은 대원이 거슬렀다.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는 늙어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대는 늙었으나 그대가 탄 낙타는 젊다. 화살을 맞던지 올라가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이런 삼엄한 두령의 뜻이어서 늙은 대원도 별수 없이 급한 비탈을 갈지자(之)형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도

리두령은 그가 불이를 담당했던 광대원이었을 때의 해박한 불교지식을 늘어놓는 일과는 달리 매우 결연하고 간단한 말을 내뱉았다. 도둑의 패거리에서조차 지도자는 달라지는 모양이었다.

두령이 좀더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기가 어디인줄 아는가."

"…"

"여기가 바로 명사산(鳴沙山)이란 말이다. 이 명사산 모랫속이야말로 모랫속 1백명(命)이 세곱절은 늘어나서 죽을 고비에 닥쳐도 죽지 않고 살아날 만큼 오래오래 살게 된다… 셋째 이제부터 그대들은 강도질이나 하는 사막의 악귀와 잡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사막처럼 정화시킬 수행자가 되기 위함이다…."

"…"

바람이 세찼다. 그러나 이 높은 지대에는 모래나 모래먼지가 없었다. 오직 바람 자체만이었다.

명사산 한가운데의 능선을 이루고 있는 인적 없는 모랫관에 천막을 쳤다.

"이 하룻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바뀌는 때이다. 각자의 마음을 동굴처럼 텅 비워라. 그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도리에게 이런 처절하기까지한 통솔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불이야말로 그의 곁에서 새삼 놀랄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서는 기껏해야 "전생에 무섭게 공부한 사람이로고"라고 혀를 내둘러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불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도리의 측근이 되어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

천막과 천막 사이에 낙타들을 주저앉혔다. 해가 뉘엿뉘엿하는 오후였다. 모래빛깔은 숫제 눈부신 황금빛이었다. 그런 황금빛 모래산 아래로 파란 월아천(月牙泉)이 길쭉한 반달 모양으로 누워있었다.

그 물은 어떤 소감도 자아내지 않는 무의미의 표상과도 같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오랜 침묵으로 죽어있는 것 같았다.

명사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오아시스 벌판 끝은 여전히 신기루의 푸른 바다와 믿음직한 섬들이 떠 있다.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 무리들이 끌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대를 지나가는 대상(隊商)이나 구도승 또는 여행자들에게는 충분한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절기에는 이 모래산 전체가 무너져내리는 듯한 소리가 천둥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오래동안 이 명사산의 모래밭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액을 면한다해서 단오날은 이 부근의 유목민이나 서로 다른 종족들이 모여들어 모래 미끄럼을 타는 일로 갑자기 은성하게 된다 한다.

하지만 명사산 마루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일행은 그런 미끄럼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도리가 차례차례로 세 군데의 막사 안에 들어가서 대원들을 살핀 다음에는 밤하늘을 별들로 가득 채운 그윽한 시각이 되자 그 대원들을 다 나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도리가 대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활과 칼 따위의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오시오!"

이제까지 두령의 입에서 들어볼 수 없던 경어(敬語)였다. 세 대원이 천막 안에 가서 무기들을 몇번에 걸쳐 껴안고 나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따위 무기대신 마음 하나로 살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이오."

"…"

"자아 모래를 파 웅덩이를 만들어 봅시다."

도리가 먼저 모래를 파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이 서 있다가 하나씩 두령이 하는 대로 모래를 파내는 일을 하였다.

모

래파기는 파는대로 곧 허물어지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해서 모래웅덩이가 생기자 거기에 무기들을 던져넣는 일을 서둘렀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이제까지의 운명이 파묻힌 곳이오. 그뿐 아니라… 나는 이제 두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오. 다만 여러분의 친구일 뿐이오."

"…"

대원들은 그들 자신이 깊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강도집단에서 전혀 다른 집단으로 바꾸는 일에 약간 어이없었다. 그럼에도 그들 중의 누구도 도리가 하는 일을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르기는 커녕 마치 아내가 지친 지아비의 옷을 벗겨주는 대로 내맡기고 있는 심정이 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도 좋습니다."

이 말에도 대원들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활과 칼 따위는 모래무덤에 던져 그것을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묻혔다.

잠든 낙타 한 마리가 깨어나 별들을 쳐다 보았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림 · 조 향 숙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물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물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사찰불교학생회 풍물패·사물놀이 등 운영

건전놀이문화 정착 '앞장'

◇ 사찰불교학생회 풍물패는 청소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각종 사찰 문화행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청소년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계사·한마음선원등 전통놀이팀 구성
새학기 맞아 신입회원 두배이상 증가

장단·춤사위 배우며 '우리것' 체험…심신수련도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일요법회뿐만 아니라 방과후에도 자주 사찰을 찾습니다. 감로수와 같은 스님의 법문도 듣고 법우들과 함께 휘모리 장단에 맞춰 징, 굉과리를 신명나게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풍물패가 구성된 사찰학생회의 청소년 불자들은 절에 다닐 맛이 새록새록 난다며 자랑한다.

사물놀이, 풍물, 탈춤등 전통놀이팀이 구성된 사찰의 학생회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예년에 비해 두배이상으로 신입회원이 증가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전국 각 사찰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풍물반, 사물놀이팀은 방과 후나 법회를 마친 이후 전통놀이의 악기다루기, 장단, 춤사위 등을 배우며 신심을 다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청소년불자들의 건전한 사찰놀이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것을 찾고자하는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건전한 놀이를 통한 심신수련, 우리의 것 바로알기 등 바람직한 실천운동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사찰이나 학교학생회에 전통놀이패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서울에만 약 50여 불교학생회가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한 수의 불교학생회가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풍물패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불자들이 팀을 구성해 전통놀이를 이어가는 단체로는 서울의 조계사학생회 도선사학생회 화계사학생회와 한마음선원학생회가 손꼽히며 부천 석왕사학생회와 청교련 온양·아산 지회의 사물놀이팀이 수준급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또 동더부고, 명성여고 등도 매년 많은 회원들의 참여속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평택 청담고등학교의 농악팀은 각종 경연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사찰학생회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조직돼 있는 전통놀이패는 사물놀이, 풍물이며 탈춤, 전통무용, 농악 등도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조직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도선사학생회 풍물패를 지도하고 있는 김선희지도간사는 "전통놀이패는 청소년불자들간의 결속력을 강하게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한 신행과 포교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며 "최근들어 학생회 행사나 사찰문화행사에서도 놀이패의 공연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불자들의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게 일지만 학교생활과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전통놀이를 배우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사찰풍물패가 건전한 사찰놀이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자의 지도는 물론 사찰과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중근 기자



◇ 천마재활원 가족인 손문수·김영아씨등 3쌍은 하객들의 축하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4월 장애인의 달 천마재활원 원생끼리 세쌍 결혼

"서로 모자람 채우며 동고동락을"

불심으로 부부인연…보호작업장서 신접살림

천마재활원 앞 뜰에 피어있는 하얀 목련보다 더 눈부신 꽃들이 피어났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거칠 것 없는 마음으로 빚어낸 꽃은 분명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지난달 30일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에서는 세쌍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 원생 손문수, 박병주, 이행기씨가 각각 김영아, 전미숙, 박수영씨와 부처님전에 백년가약을 다짐하고 하객들에게 정중한 예를 올린 것이다.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조화로운 인격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행·주·좌·와하는 모든 생활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살펴 주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전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은 이날 주례를 맡아 이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90여명이 다른 원생들보다 장애의 정도가 덜하긴 하나, 갓난아기 때 이곳 천마재활원으로 보내져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출생지와 나이도 모른다. 신체발육의 정도를 보고 대략 29~31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데는 세속의 기준처럼 나이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손문수씨(29세)의 경우는 신부 김영아씨가 자신보다 세 살 많은 32세로 이들은 재활원에서 지내는 긴 시간동안 달콤하고 간절한 사랑의 편지를 쪽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작업장에서 서로의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는 등 그들의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세쌍의 부부는 지금까지처럼 '보호작업장'이라 불리우는 재활원내 '직장'에서 원예, 도자기 제조, 편물 등의 일을 하며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지급받고 원내에 꾸며진 신방에서 알뜰한 신접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결혼이 성사되기까지에는 재활원 박근련원장의 간절하고 오랜원력이 그 결실을 맺은것.

박병주씨의 신부 전미숙씨는 "앞으로는 아침마다 반야심경을 열심히 독송하며 하루하루 의미있는 신혼생활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하는둥 마는둥 그냥 지나쳐 왔거든요. 주례를 해주신 정관스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도 기를 거구요"라며 신혼의 달콤함을 선뜻 내비쳤다.

하객들의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3쌍의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이 끝날때까지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하객들의 축시와 축포가 터지는 가운데 결혼식을 끝낸 이들은 1박2일의 일정으로 동래온천으로 소박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박병근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올바름의 장 *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 앉힌
사람은

이 향 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95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정가 1권 12,000원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TEL : (02)269- 2972 , 275-4391



· 동국역경원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역장경 (漢譯藏經) 및 팔리어장경 (巴利語藏經), 범어장경 (梵語藏經) 그리고 한국고승문집 (韓國高僧文集)을 번역한 한글대장경의 발행과 기타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고본[現代 佛敎新書]과 단행본의 출판을 목적으로하고 1964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삼대사업 중 하나인 역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역경위원회의 번역원고를 출판, 보급하기위하여 동국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발족.

· 주요활동사항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과,현대불교신서, 불교총서, 기타 단행본 여러종을 간행하였으며, 역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동중.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희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현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쟈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 (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 (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체와 자비의 말씀 (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 (외)
155. 방광대장엄경 (외)
156. 과거현재인과경 (외)
157. 문수사리문경 (외)
158. 무소유보살경 (외)
159. 금색동자인연경 (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일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 (외)
173 수능엄경
174 도행반야경
175 아비담팔건도론
176 아비달마발지론
177 아비담심론
178 아비달마순정이론 1
179 아비달마순정이론 2
180 아비달마순정이론 3
181 아비달마순정이론 4
182 아비담비바사론 1
183 아비담비바사론 2
184 아비담비바사론 3
185 사리불아비담론 1
186 사리불아비담론 2
187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18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189 근본설일체유부니타야목득가
190 근본설바다부율섭
191 마하승지율 1
192 마하승지율 2
193 성유식론
194 대방광십륜경
195 해탈도론

"베트남불교 안방서 본다"

불교TV 초파일 특집 '다시 일어나는…' '크메르인…' 제작

불교TV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외불교의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프로그램 '다시 일어나는 베트남 불교'와 '크메르인의 미소-앙코르와트(PD 김형준)'를 제작한다.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또 전체 인구의 80%가 불교신자인 베트남을 찾아 베트남 불교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할 '다시 일어나는 베트남 불교'는 베트남 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불교와 승려의 나라 베트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 나아가 양국간의 불교교류 촉진을 앞당길 계획이다.

담당 김형준PD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베트남 불교의 저력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베트남 현지 한국인 2세 라이따이한의 생생한 인터뷰로 중생구제의 종교인 한국불교가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힌두고와 불교가 혼합된 독특한 조형양식과 건축미로 불교의 새로운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앙코르 와트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게 될 '크메르인의 미소-앙코르 와트' 편은 현재 복원이 한창 진행중인 앙코르 와트, 그 관세음의 나라로 시청자들을 안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빈국중의 하나인 캄보디아의 현장을 찾아 캄보디아 불교교단의 빈민구호 활동도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캄보디아 캄둥에서 우리는 선우가 지원하고 있는 캄둥고아원 등을 방문, 현지 승단지원과 난민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활동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KBS국악관현악단 공연
박범훈·김영동씨 연주

KBS국악관현악단 제87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KBS홀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작곡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동씨가 '신시'를 연주할 예정이며, 꾸준한 찬불가 창작을 해오고 있는 중앙대 박범훈 교수의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셋째거리'가 선보이게 된다.

불교TV 사보발간

불교TV가 사보 〈btn가족〉을 곰 발간한다.

이 사보에는 불교TV 개국이후 현황과 케이블TV업계 전반에 대한 각종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며, 주주와 각 종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불교방송 '…열린경제' 진행 전 정 봉 박사



"나날이 변하는 세월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곧 경제방법이지요" 생활속의 살림살이를 부드럽고 쉬운 터치로 꾸며나가는 불교방송 최초의 경제프로그램 '전정봉의 열린 경제(PD 김학주)'를 진행하고 있는 전정봉 박사(법명 다범)의 말이다. 매일 오전 7시15분부터 4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간추린 경제뉴스, 각종경제, 무역전시장 소식등 싱싱한 생활경제정보를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변하는 시대의 경영전략 코너를 통해 생활과 경영능력의 배양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박사는 "현대인들이 알아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증권, 금융, 부동산 주택정보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경제를 이야기 생활경제코너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매일 아침 경영인 전문인 여성경제인 생산관매현장 스님 일반인을 전화로 연결, 현장에서의 경제활동도 담아내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전박사는 지난 88년과 94년 KBS 라디오에서 경제전망대 코너를 진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실생활 필요한 정보 모아 절약하는 삶에 도움줄 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대중들과 나눈다는 보시의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전정봉박사는 "불교하면 경제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불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절약하는 삶을 일깨워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



◇ 지자대사 진영



◇ 대각국사 진영

천태종 지자·대각국사 영정 조성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최근 구인사 조사전에 봉안할 지자대사와 대각국사의 진영을 조성했다.

이번에 제작된 진영은 세로 180센티에 가로 119센티 규모로 대각국사는 순천 선암사의 영정을 정면상으로 현대화 시켰으며, 지자대사는 중국 국청사와 일본 연력사의 영정을 고증하여 동국대 손연칠교수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의 작업끝에 완성한 것이다.

손연칠교수는 "비단천에 천연의 색을 가루내 채색하는 석채를 이용했다"며 "고려의 전통기법인 북채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직영사찰 조사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 2일 '직영사찰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인공)'를 구성하고 종단내 직영사찰의 현황을 파악하여 종무행정에 반영키로 했다.

직영사찰 실태조사위는 직영사찰의 ▲재산보존상태 ▲주지임면현황 ▲신도현황을 조사키 위한 것으로, 이는 종단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위원으로는 법인 무불 혜연 무위스님이 임명됐다.

새싹불자 포교 전위대 '평가'

청교련 창립 30주년…14일 도선사서 기념법회



◇ 현성스님

불교계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선언하고 나섰던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이하 청교련)가 14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1966년 청소년 포교의 부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청교련은 대의스님(초대총재), 안병호씨(초대회장), 운문스님 등이 뜻을모아 한국불교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법을 바탕으로 건실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교련은 교계 최초로 개최한 불교음악발표회와 예술제(67년)를 시작으로 그동안 교육, 수련, 문화, 지역사회복지사업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전법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이처럼 청교련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외치며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계의 유일한 청소년 단체로 새싹불자 포교활동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초창기 청교련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부족과 범종단차원의 지원부재 그리고 내부적인 조직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련은 지난 89년 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화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30년동안 청소년 포교활동만 고집해 온 청교련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도선사에서 열릴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연합대법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어린이 청소년 연합체육대회, 청소년 간부수련대회, 청소년 큰잔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약물남용 예방캠페인,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 환경보존 캠페인 등도 연중행사로 실시하는 등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한다는 것.

현재 서울지부를 비롯 11개 지부 3개지회 21개의 시설에 6만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청교련은 앞으로 조직을 활성화 해 청소년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주년을 분수령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국제교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 청교련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를위해 청교련은 현재 운영중인 6곳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순수봉사활동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청소년포교 관련프로그램도 변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 포교이론과 자료의 개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회원 6만3천여명…봉사·국제교류등 강화 모색

목탁소리

종회의원 명예직 아니다

조계종 120회 임시중회가 지난달 31일 끝났다. 이번 종회는 95년도를 결산하는 결산종회였다. 또한 제도정비를 위한 종법제정과 시급히 처리해야할 종단현안문제가 상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종회는 종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종회사에 부끄러운 회기로 남게되었다. 성원이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폐회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종회는 종단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종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안건들이 종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종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종회가 성원이 안되어 폐회되고 말았으니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을 면치못하게 된 것이다.

종회의원의 출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불사와 함께 출범한 현종회는 '종회 무소불위 시대'를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먹구구식 종단운영을 지양하고 종회를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막강한 힘이 부여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회는 각 분과별로 무려 1백50여회의 회의가 있었던건만 보아도 종회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종회가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에 한 번꼴로 열린 회의도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로 끝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종회의 문제점은 참석율 뿐만이 아니다. 종회의원들의 전문지식결여도 종회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종회의원들이 종헌종법을 보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렇다보니 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의원은 종회의 주인이 아닌 방관자로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

종회의원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소속분과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종회가 입법과 집행부의 감시 감독을 한다면 종도들은 종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준엽 기자

불교영화 봐주기

불교영화 카루나가 상영 1개월만에 간판을 내리게 생겼다.

지난달 16일 서울 스카라극장을 비롯 전국 16개 극장에서 개봉됐던 카루나는 현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형편없는 흥행실적으로 개봉관 중 3분의2가 간판을 내렸다.

서울 스카라극장과 부산 국도극장등 대형극장에서도 1일 최다 관람객수가 1천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봉직전만 하더라도 이미 30만장의 할인예매권이 전국적으로 발행돼 많은 사람들이 카루나의 흥행성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30만장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조차 알수 없다.

애당초 제작사인 일목필림측은 초파일까지 롱런을 예상했었으나 하루평균 1천명의 관객이 들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최종 간판을 내려야 할 형편에 처해있는 것이다.

카루나의 이일목감독은 "대종상 영화제에도 이미 출품을 마쳤는데 이렇게 흥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람을 호소하고 있다.

종교영화 제작은 대중성이 없고 흥행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라 일반 오락영화에 비해 기획자체가 어렵다. 작품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지적하기 이전에 불교영화가 흥행면에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 불교영화의 계속적인 제작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불자들이 불교영화를 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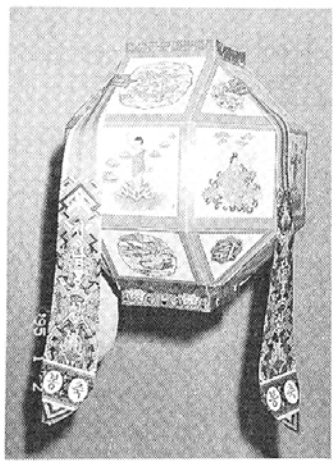
지난 90년 불교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서 작품상을 수상하고 관객 등원에서도 성공한 이후 이에 자극받아 몇몇 불교소재의 영화들이 제작됐었다.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불교영화가 제작돼 상영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대중포교방편도 없을 것이다.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은 채찍질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수준높고 작품성있는 불교영화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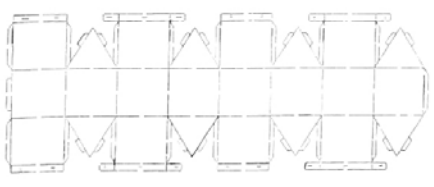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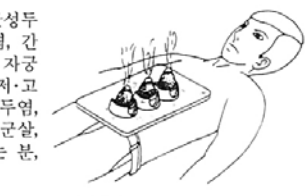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헌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5층)
■대한 불교 조계종 : 보문 포교원(원장 각장 스님)
■부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본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 (0335) 34-9490, 39-1906
아간 : (0342) 706-3060

서울강남지회 : (02) 597-7581
서울강북지회 : (021747-7033
부산지회 : (051) 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 (053) 323-2598
대전지회 : (02) 222-4936
광주지회 : (062) 228-8544
제주지회 : (064) 22-3324

도심사찰 재개발 피해 '심각'

제기동 보현사 강제철거 위기…방생선원 진입로 폐쇄

전통사찰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 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찰환경이 크게 훼손, 사찰과 해당 시군구청,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도심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들이 법회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제기동 보현사(주지 태연)는 지난달 19일 제기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월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개발조합이 보낸 '이주독촉안내장'에 따르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보현사 주지 태연스님은 "재개발구역 내에 현재 사찰규모(대지 106평) 만큼의 종교부지에 보현사에서 원하는 건물을 지어주어야 하고 또 공사기간 동안 법회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현사는 지난 80년 제기동 122-160, 161 한옥을 매입해 도심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800여 세대가 신도로 등록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보현사에서 재개발에 반대해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현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므로 종교부지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돈암동 방생선원의 경우, 공사착공 2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찰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당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찰의 한 스님은 "사찰이 고지대에 있어 어린이는 아예 올라올 엄두를 못내고 있고, 어른들도 정장차림으로 올라오기 힘들 정도의 길만 내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음공해도 심각하다. 하루에 많으면 8차례나 폭파를 실시하고 굴착기 소리 때문에 정상적인 법회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양영태 변호사는 "현행 법으로는 사찰이 재개발을 반대해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철거도 가능하므로 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과정부터 사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소지가 많으므로 종단차원에서 사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상담창구도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공명선거 '안'과 '밖' 4·11총선을 앞두고 종단협산하 공명선거계도위원회(위원장 월서)는 지난 3일 조계사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갖고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사진 위). 이에앞서 2일 '불심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는 신한국당 이홍구 전 국무총리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등 간부들이 칠보사와 조계사를 참배, 물교 표받디지기에 나섰다. 〈사진=고영배 기자〉

납골당 국민절반이상 선호

우리나라 사람들의 납골당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중부대교수)가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명을 대상으로 장묘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납골당 안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귀하와 배우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례방법'을 묻는 질문에 '화장 또는 납골당 안치'는 37.9%, '시한부매장 후 납골당 안치'는 18.9%였다. '매장한다'는 의견은

토지행정학회 '장묘문화개선' 의식조사

"국토묘지화 막자" 39%…시설현대화 시급

43.1%로,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식조사에서 매장에 찬성한다는 49.9%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장묘시설을 관광·레저시설과 병행하는 것에는 적합하다(15.0%)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훨씬 많았다.

국토가 묘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39.0%가 '결코 안된다'고 답해 묘지 확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9.5%), 화장·납골당시설 현대화(25.0%), 시한부매장제 도입(19.2%), 정부의 정책의지(15.5%) 순으로 응답했다. 장례방법 결정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1.9%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는 편이다'가 10.0%, '어느 정도 믿는 편'이 56.7%로 응답해 많은 국민들이 풍수지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태복교수는 "매장선호 관행 때문에 경관훼손은 물론 국토개발에 큰 지장이 생기면서 묘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현대화된 납골시설을 갖출 경우 매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국토의 1%가 넘는 약 982㎢, 분묘수는 약 2만여기에 이른다. 사설 및 공설 묘지는 242개소인 반면 화장장은 46개소, 납골당은 54개소이다. 지난해 화장율은 약 22%로 추정된다.

조계종 관람료 사찰 작년 3천만명 입장

조계종 57개 관람료 사찰의 95년도 관람인원은 총 2천9백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인원은 신흥사 2백80여만명, 불국사 2백40여만명, 석굴암 1백70여만명 순이다.

정암사 만항지구개발 반대 '결의'

월정사, 산림훼손·수질오염 우려 표명

정부가 폐광촌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사북 고한지역을 관광특수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조계종 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4일 교구종회를 열고 정암사일대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키로 결의했다.

교구종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암사 만항지구는 희귀어종 열목어가 서식하는 천연자연보호림지역으로 산림훼손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개발지역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구종회는 또한 "만항지구 개발은 천년고찰 정암사 적멸보궁의 수행과 보물 수마노탑 보존을 어렵게 하는 등 종교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게 된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총무원 재무부장 원우스님은 지난 종회에서 종책질의를 통해 "정암사 일대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다"며 "사찰과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남 사암련 발족 회장에 삼각스님

해남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 6일 대흥사 백설당에서 창립, 초대회장에 삼각스님(은적사 주지)을 선출했다. 대흥사 미황사 등 해남지역 30여 사찰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함께 △해남지역 포교활성화 △사회복지 등의 활동을 함께 펴나가며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도 함께 봉행한다.

청교련 제주지부 창립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제주지부는 지난달 23일 창립총회를 열어 고봉식 제주관광전문대학장을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제주지역 청소년포교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선암사앞 아파트건설 막자"

스님·신도들 '전사법 무시처사' 즉각철회 주장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가 부산 부암동 소재 선암사(주지 덕륜) 소유토지 2만4천여평을 수용,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선암사 스님과 신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선암사 스님, 신도 3백여명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앞에서 전통사찰 수호 특별법회를 갖고 "주공측의 선암사 대웅전 기점 1백40m지점까지의 토지수용은 전통사찰보존법을 무시한 위법"이라 단정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암사측은 주공이 일방적으로 94년 11월과 95년 6월, 2회에 걸쳐 부산지방법원에 83억7천만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공탁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말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층 규모의 아파트 3천9백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가 선암사를 병풍처럼 둘러싸게 돼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일부 신도들이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건물에서 아파트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공측은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교과서 불교내용 고찰 13일 교법사단 세미나

전국 교법사단(단장 김종환)은 오는 13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단 5주년 기념 법회 및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 고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내용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광동중 채성만교법사가 '중학교과서에 나타난 불교내용'과 고우익 동대부중 교법사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2년 월드컵유치 기원 장애인 국토종단걷기 대행진

23일부터 5월3일까지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를 위한 국토종단 장애인걷기 대행진(대회장 종하스님)이 오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종단 장애인 걷기대회 추진위와 MBC문화방송사업국 주최로 열리는 이번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경기지부, 중앙재활원이 주관한다.

이번대회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제주도, 부산, 마산, 광주, 전주, 대구, 원주, 청주, 대전을 거쳐 다시 서울에 모여 임진각에서 통일염원제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또한 행진기간 동안 각지역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등 보장기구가 전달될 예정이며 장애인 40쌍의 합동결혼식도 봉행하게 된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조계사 붕괴진행 원인은 지반침하

현대건설 '한국일보 신축공사' 중단

한국일보 신축공사로 총무원 청사와 조계사 대웅전 문화교육관 해탈문이 붕괴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조계사 총무 선광스님과 임현용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3일 새벽 △붕괴진행의 원인이 조계사 대웅전과 불과 30여m 거리에 인접한 한국일보 사옥 신축공사에 있으며 △이에따라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조계사 경내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 적절한 개·보수 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른 비용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조계사는 지난해 한국일보사옥 지하 24m의 지반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침하로 건물 붕괴위험이 있음을 발견, 현대건설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도 지난달 29일 안전진단 결과, 공사현장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지반침하 및 균열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대웅전 지붕이 가라앉고 상량보가 일부 부러져 붕괴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대웅전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지난달말부터 1주일여 동안 조계사신도들이 종로구청과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 매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종교편향 대통령 공개사과" 요구

30일 조계사 규탄대회

대구, 창원, 마산, 부산에 이은 김영삼정권 편향적 종교정책에 대한 규탄법회가 지난달 30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실천승가회 석림회 전승련 등 3백50여명의 스님과 1백여명의 재가자들은 이날 법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종교전문대학원 설립안'의 전면 백지화에 작접 나설것을 촉구하고, 엄정한 종교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이날 규탄법회에서는 또 정부의 일련의 종교편향을 '종단혁신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불교미래와 진정한 개혁을 위해 매진하자고 결의했다.

마음 전 우주가 내 스승

전 우주가 내 스승입니다. 잘 살펴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동참금 : 230만원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동참금 : 180만원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동참금 : 135만원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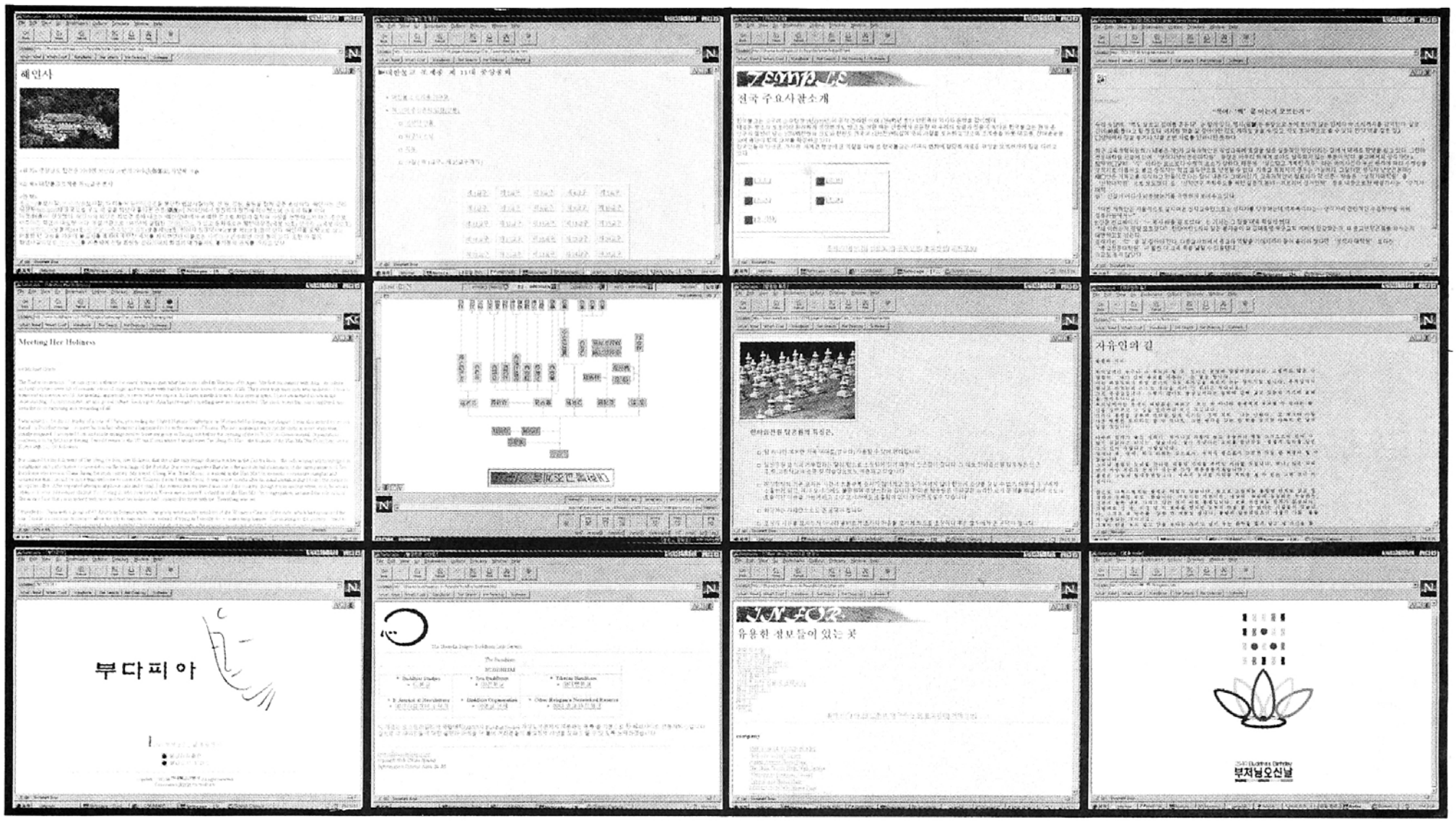
인도 성지순례 9일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동참금 : 145만원



삶의 질의 척도는 문화입니다.

이들은 불교문화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신성(주)은 불교문화 창달의 밑거름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유통 전문회사

新星시스템(株)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2
TEL : (02) 712 - 0544
FAX : (02) 706 - 3943